정책연구 2014-34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 마을복지문화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 구 진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차 례

제1장 연구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1. 연구의 범위 ····· 7
2. 연구의 방법 ····· 8
3. 연구체계 ····· 9

제2장 이론적 검토 ····· 11

제1절 광주시 민선6기 정책 ····· 13

제2절 시설입지 및 서비스공급 기준 ····· 16

1. 시설입지 측면 ····· 16
2. 서비스 공급 측면 ····· 17

제3절 개념 및 정책 사례 ····· 26

1. 노인 및 노인복지의 개념 ····· 26
2. 노인복지 관련 정책 ····· 28

제3장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51

제1절 국외사례 ····· 53

1. 대만 ····· 53
2. 프랑스 ····· 56
3. 독일 ····· 57

4. 일본 ····· 60
5. 미국 ····· 62
6. 영국 ····· 70
7. 스웨덴 ····· 76
제2절 국내사례 ····· 78
1. 노인체험 시설 ····· 78
2. 노인문화마을 ····· 79
3. 노인일자리사업 ····· 81
4. 문화관련사회적기업 ····· 81
5.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경로당 운영사례 ···· 8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98

제4장 거점형 경로당 운영방안 ····· 101

제1절 경로당 기능 및 현황 ····· 103
1. 경로당 기능 ····· 103
2. 경로당 현황 ····· 104
제2절 거점형 경로당 운영방안 ····· 115
1. 경로당 문제점 ····· 115
2. 경로당 운영 발전방향 ····· 119
제3절 거점형 경로당 활성화방안 ····· 122
1. 거점형 경로당 설치 정책목표 및 성격의 재정립 · 122
2. 사업주체를 법인격을 갖춘 지역공동체로 전환 · 124
3. 지역순환형 사업모델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 ····· 125



4.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을 통한 간접지원 확대 · 126
5. 지자체 주도의 추진체계 확립 ····· 129
6. 일반 기업과의 상보(상생) 관계 형성 ····· 129
7.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 130
8.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130
9. 거점 경로당 지역공동체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화 ····· 131

제4절 광주형 지역복지 지역공동체(안) ····· 132
1. 지역복지형 모델의 정의 및 목표 ····· 132
2. 지역복지형 모델 적용 여건 ····· 134
3. 지역복지형 모델 추진전략 및 과제 ····· 137
4. 지역복지형 모델 예시 ····· 140
5. 지역복지형 모델 국내외 사례 ····· 141

참고문헌 ····· 146

표 차 례



<표 1-1> 평균수명 증가 추이 ····· 4
<표 1-2> 노인인구 부양부담의 변화추이 ····· 4
<표 2-1> 경로당, 마을복지문화센터(주민의 집) 전환 추진(안) ·· 15
<표 2-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내용의 예시 ····· 18
<표 2-3> 사회복지생활시설 서비스 공동 최소기준 ····· 20
<표 2-4>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공동 최소기준 ····· 21
<표 2-5>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기본 개념 ····· 31
<표 2-6> 국민연금의 종류별 급여요건과 수준 ····· 32
<표 2-7> 노령연금 수급액 ····· 32
<표 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 33
<표 4-1> 지역별 경로당의 규모 ····· 105
<표 4-2> 지역별 경로당의 시설·설비 및 비품 현황 ····· 106
<표 4-3> 경로당 프로그램별 활동비율 ····· 107
<표 4-4> 광주시 경로당 현황 ····· 108
<표 4-5> 광주시 복지시설 위상 ····· 109
<표 4-6> 광산구 경로당 현황 ····· 111
<표 4-7> 광산구 경로당 현황 ····· 112
<표 4-8> 광산구 경로당 현황 ····· 113
<표 4-9> 광산구 경로당 현황 ····· 114
<표 4-10> 광산구 경로당 현황 ····· 115
<표 4-11> 경로당의 분야별 프로그램(예시) ····· 117
<표 4-12> ‘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 3개부문 16개 사업 123
<표 4-13> 중간조직 사례(일본) ····· 127
<표 4-14> 세부추진과제 및 구체적 사업예시 ····· 139
<표 4-15> 사업개요 ····· 141

그림차례

<그림 3-1> 용암마을경로당 회원들이 독서지도를 하는 모습 · 87
<그림 3-2> 장동경로당의 공방 작업장 현장 ····· 90
<그림 3-3> 신천청아람경로당 전통예절교실의 교육 모습 ····· 93
<그림 3-4> 삼익비치경로당 회원들의 환경정화활동 모습 ····· 96
<그림 4-1> 광주시 경로당 현황 ····· 108
<그림 4-2> 광주시 복지 지원 정도 ····· 110
<그림 4-3>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설계(안) ····· 128
<그림 4-4> 삼태기건강마을 마실사랑방, 건강산책로, 건강동아리 ····· 141
<그림 4-5> 건강검진, 어린이건강교실, 해외기관의 방문 ····· 145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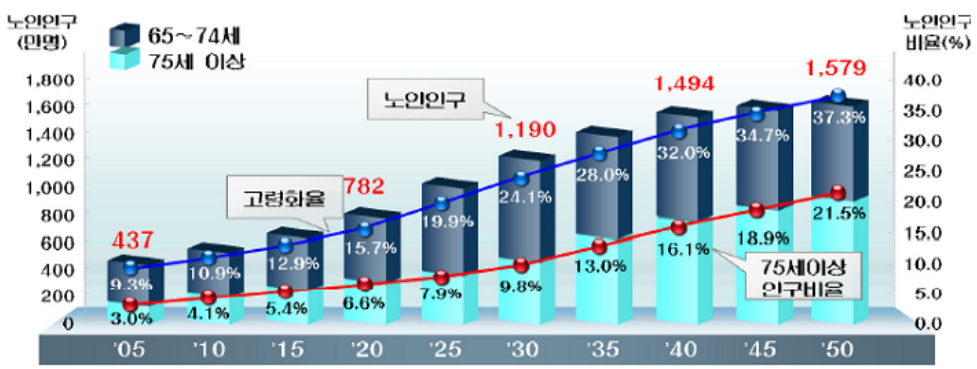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평균수명은 영양·건강상태 개선, 의료기술 향상 등으로 1960년부터 지난 40년 동안 평균수명이 22.5세 증가하였으며, 2014년 현재 남자 78세, 여자 85세로 평균 81.5세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 추정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매우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국제 연합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음
- 또한,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림 1-1> 고령화 추이 및 전망



○ 따라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되며, 빠른 고령화 속도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표 1-1> 평균수명 증가 추이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전체	52.4	62.3	66.2	71.7	75.9	79.1	81.0	81.9	83.3
남	51.1	59.0	62.3	67.7	72.1	76.2	78.2	79.2	80.7
여	53.7	66.1	70.5	75.9	79.5	82.6	84.4	85.2	86.6

자료 : 통계청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은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인 부양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 즉,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부양비는 1960년 5.3%에서 2000년 10.15, 2020년 21.75, 그리고 2050년에는 7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2000년에는 생산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으나, 2050년에는 생산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생산인구의 노인 부양에 따르는 부담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1-2> 노인인구 부양부담의 변화추이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유년부양비[1)]	77.2	78.2	54.6	36.9	29.4	22.2	17.2	17.7	16.8
노인부양비[2)]	5.3	5.7	6.1	7.4	10.1	15.0	21.7	37.7	72.0
총 부양비[3)]	82.5	83.9	60.7	44.3	39.5	37.2	38.9	55.4	88.8

자료 : 통계청

1) 유년부양비=(14세 이하÷인구 15~64세 인구) ×100

○ 쉼터 공간밖에 없어 이용 어르신이 거의 없고, 노인 100세 시대에 젊은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

- 2014년 12월 기준 광주시내 경로당은 1,272개소 (동구 107, 서구 224, 남구 214, 북구 369, 광산구 358)가 공급되어 있음
- 반면, 도시의 팽창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노인복지관(9개)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임

· 따라서, 기존의 경로당을 통합하여 노년층에 적합한 거점경로당 및 작은 복지관 개념의 노인복지관의 설립이 필요

○ 기존 시설의 재사용과 신규 시설의 공급간 간극의 축소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도모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운영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노년층 참여와 나눔의 복지시설을 같은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
-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복지문화센터의 시범실시 후 확대방안 검토

· 경로당 : 생활권역별로 '거점 경로당'을 만들어 마을 속의 '작은 복지관'으로 활용
· 노인복지관 : 마을중심 공동체복지의 새로운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광주형 노인복지관 건립

○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기능의 마을복지문화센터의 운영 필요

- 어르신들의 쉼터 구실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집'으로 기능을 다양화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구성
- 공간의 구성 및 공급 외에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일자리 및 소득

2) 노인부양비=(65세 이상÷인구 15~64세 인구) ×100
3) 총 부양비=유년부양비+노인부양비

창출 기능을 확보한 마을복지문화센터의 공급

❍ 광주형 노인복지는 베푸는 복지에서 어르신과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된 자립형 복지 시설(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맞추어 추진

- 여가공간이나 학습공간을 활용 다양한 소모임 활동, 취미활동, 평생학습 진행
-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 실내운동실, 테라스 등 모임 공간 활용
- 카페와 식당을 거점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반찬가게, 차, 음식 판매
- 어르신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주민들 학습공간, 방과 후나 주말에는 아동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 구축

2. 연구의 목적

❍ 광주 경로당에 대한 현황 파악
  – 경로당 시설, 운영 프로그램,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
  – 생활권 설정 및 인구권역 설정을 통한 경로당 통합 운영방안

❍ 마을복지문화센터로의 전환 방안 도출
  –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 제시
  – 경로당 통합 운영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
  – 경로당 통합형 마을복지문화센터 역할 제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3년 말 기준

· 가용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승인통계 최신 기준시점을 적용
· 승인통계 외 읍면동 자료 이용을 위한 행정통계 활용

□ 공간적 범위

❍ 광주시

– 광주시 하위 읍면동 –

· 광주시 시설수 및 이용률 기준 현황 파악
· 경로당 읍면동을 기준

□ 내용적 범위

❍ 행정 및 승인통계를 활용한 입지분석

– 지역별, 생활권별, 인구별 경로당 현황 조사

❍ 기존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영국, 일본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노인 일자리 확보 및 소득창출 국외 사례 조사

– 경로당 통합 운영에 대한 국내 사례 조사

❍ 마을복지문화센터 공급 프로그램 제공

– 향후 운영 프로그램 방향 제시

❍ 지역공동체 활용 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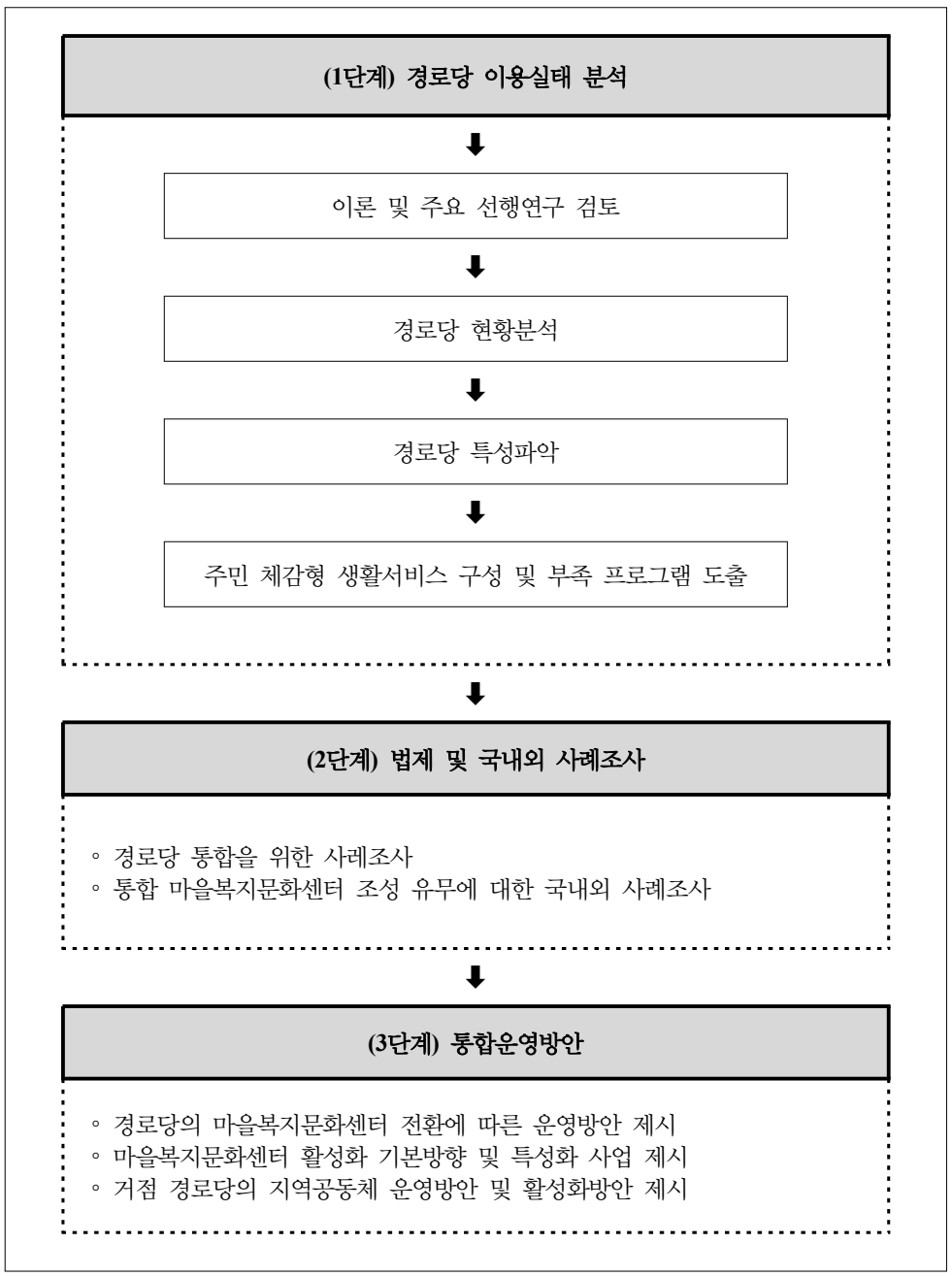
❍ 현황조사
- 지역별, 생활권별, 인구별 경로당 현황 조사
- 고령화에 따른 장래 경로당 및 마을복지문화센터 수요조사

❍ 국내외 수범사례 조사
-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국외 사례 조사
- 경로당 통합 운영에 대한 국내 사례 조사

❍ 문헌조사
- 이용실태, 프로그램 운영 특성 조사
-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문헌 조사

3. 연구체계

<주요 연구체계>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광주시 민선6기 정책
제2절 시설입지 및 서비스공급 기준
제3절 개념 및 정책 사례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광주시 민선6기 정책

1. 통합 운영 방안

❍ 생활권역별로 '거점 경로당'을 만들어 마을 속의 '작은 복지관'으로 활용
  – '희망광주준비위원회' 4개년 계획에 따라 2015년에 시범적으로 경로당 4~5개소를 하나의 경로당으로 통·폐합해 이를 '마을복지문화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 마을중심 공동체복지의 새로운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광주형 노인복지관 건립

· 경로당 : 쉼터 공간밖에 없어 이용 어르신이 거의 없고, 노인 100세 시대에 젊은 노인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음
· 노인복지관 : 도시의 팽창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노인복지관(9개)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운영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기능 수행
  – 어르신 참여와 나눔의 복지시설로 같은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

❍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마을복지문화센터 3개소 시범실시 후 확대

❍ 어르신들의 쉼터 구실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집'으로 기능을 다양화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구성

- 일반 주택 개념이 아닌 '소규모 노인복지관' 규모로 건물을 건립할 계획
- 경로당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공간에 운동시설, 북카페, 도서관 등 일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 노인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로당을 주민들의 소통하고 어울리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취지임
-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꾸려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포함
- 거점 경로당은 노인들의 쉼터, 여가시설로 인식돼 있는 기존의 경로당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 광주형 노인복지는 베푸는 복지에서 어르신과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된 자립형 복지 시설(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맞추어 추진

· 여가공간이나 학습공간을 활용 다양한 소모임 활동, 취미활동, 평생학습 진행
·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 실내운동실, 테라스 등 모임 공간 활용
  - 카페와 식당을 거점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반찬가게, 차, 음식 판매
· 어르신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주민들 학습공간, 방과 후나 주말에는 아동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 구축

- 사업기간 : 2014년 7월 ~ 2018년 6월(민선 6기)
- 사업대상 : 5개 자치구, 1,260개소 경로당
- 신규설치 : 3개소(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마을 선정)
  • 남구 주월동에 신축 중인 거점경로당을 모델로 추진
- 총사업비 : 6,330백만원(개소당 2,110백만원)
  • 시·구비분담율 7:3
- 마을복지문화센터(거점 경로당)는 기존 경로당과는 달리 노인들과 함께 주민, 아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체 수익구조를 통한 재원확보로 자율적으로 운영

❍ 남구청에서 추진중인 거점 경로당을 비롯 4개소 설치하여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점진적 확대 추진

- 남구는 실제로 2012년 주월1동 5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로부터 각 경로당의 이용자가 적어, 차라리 하나의 큰 통합경로당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로당 통·폐합 사업을 추진
- 2013년부터 20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 9억 원을 들여 장산초등학교 옆 부지를 마련했고, 설계 작업이 끝나내는 대로 착공할 계획
- 건물의 전체 규모는 약 1322㎡(400평)으로, 1층은 경로당, 2층에선 학습, 문화 등 일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서구 노인복지관 건립(구청장 공약)을 마을문화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표 2-1> 경로당, 마을복지문화센터 (주민의 집) 전환 추진(안)

층 별	건축면적(평)	주 요 용 도	비고
계	711.9㎡(215평)		
지상1층	454.71㎡(138평)	■ 식당, 할아버지방, 할머니방1, 할머니방2 ■ 북카페(테라스), 로컬푸드판매, 유희실 등	텃밭
지상2층	256㎡(78평)	■ 휘트니스, 휴게데크, 샤워실 ■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	
옥 상		■ 옥상 정원	

❍ 연차별 추진계획

- 민선6기 주민의 집(마을복지문화센터) 방침 결정
- 자치구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대상자 선정계획 포함)
- 1단계 시범사업 추진(1개소) : ~ 2016년 12월
- 2단계 전환사업 확대추진(2개소) : 2017년 1월 ~ 2018년 6월

제2절 시설입지 및 서비스공급 기준

1. 시설입지 측면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체계와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 증대 측면에서 접근

❍ 입지선정 원칙 : 주민복지 극대화 원칙

❍ Weber의 입지모형

– 공공시설 이용자의 총통행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입지점 선택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에 주안점

• Min $\Sigma rj \cdot dj$

rj : j지역의 공공서비스 이용자수

dj : 이용자(j지역 중심지)와 공공시설간의 거리($dj = \sqrt{(x - xj)2 + (y - yj)2}$)

– 웨버모형은 분석대상 공간상의 어느 지점도 최적입지점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형적인 조건과 용도지역·지구제, 가용토지 여부 등에 의해 제한

– 반면 공간상태를 결절(node)과 통로(link)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보아 결절점 중에서 최적입지를 찾는 모형이 이산모형(discrete model)임

❍ 롤즈(Rawl) 모형

– 공공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

– 즉,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이용자간의 최대통행거리를 최소화 하는 입지모형

• minimax 기준 : 시설이용자의 최대통행거리를 최소화하는 입지모형(시청, 소방서 등 근접을 선호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적용)

• maximin 기준 : 시설과 주변지역 주민간의 최소통행거리를 최대화하는 모형 (쓰레기소각장 등 근접입지를 배척하는 협오시설의 경우)

$\min(Z = \max rj \cdot dj)$

$\max(Z = \min rj \cdot dj)$

2. 서비스 공급 측면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단기적 목적
- 첫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반을 정착시키고 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 둘째,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셋째, 사회복지시설 실태파악을 통하여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장기적 목적
-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 둘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
- 셋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

❍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과(performance)[4]에 관한 논의가 활발
- 글로벌 경쟁에 뛰어든 기업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성과에 의존하고 있음
- 정부 또한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성과관리를 운영
- 비영리 휴먼서비스기관에까지도 성과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추세

❍ 일반적으로 성과평가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결과(results or outcomes)와 효율성(efficiency)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
- 성과평가는 서술적인 평가도구로 심도 있는 평가연구와 비교할 때 상

4) Nickols는 성과(performance)를 행위의 결과(outcomes of behavior)로 정의했으며 다시 결과(outcomes)는 성취(accomplishment)와 같은 의미라 하였다. 따라서, 성과(performance)는 한 사람 이상의 행위(behaviors)가 낳은 한 가지 이상의 결과(outcomes)를 반영하여 얻어진 조건의 성취(achievement)를 말한다. 류랑도(2006: 11)는 성과(performance)를 의도하는 목적이 탁월하게 달성된 결과(outcomes)로 정의

대적으로 표면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적시에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여 성과중심의 관리(managing for results)가 행해지고 있는 정부나 비영리기관에 적절한 평가도구임

❍ 서비스 공급 최소기준

- 핵심영역 : 서비스 품질관점에 입각하여 복지관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주요 특색들로 분류되는 요소들로 본 연구에서는 연관성을 지닌 준거들을 범주화하였을 때, 동일한 종류로 분류되는 주요범주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
- 최소기준 :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기대(요구)되는 혹은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만한 성과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적(prescriptive)이기보다는 다소 일반적(general)인 특성(nature)이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
- 세부항목 : 서비스 품질관점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분류된 핵심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로 핵심영역에 대한 세부항목
- 기준선 : 현재까지 축적된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와 향후 시범사업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가능한 지표에 대해 기준선(baseline)을 제시

<표 2-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내용의 예시

핵심영역 (categories & items)	세부항목 (minimum standards) ※정성지표: 지방정부 관리	수행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정량지표: 중앙정부 관리
Ⅰ. 권리(Human Rights)		
정보	기준1. 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사생활과 비밀보장	기준2. 사생활과 비밀보장	
고충호소	기준3. 고충호소	turnaound time
학대, 방임, (성)폭력방지	기준4. 학대, 방임, (성)폭력방지	
따돌림 방지	기준5. 따돌림 방지	
Ⅱ. 환경(Environment)		
시설의 위치와 규모	기준6. 시설의 위치와 규모	accessibility, convenience
주거 공간	기준7. 개별공간의 면적	
	기준8. 개별공간의 가구와 부속품	
화장실과 욕실	기준9. 화장실과 욕실	

핵심영역 (categories & items)	세부항목 (minimum standards) ※정성지표: 지방정부 관리	수행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정량지표: 중앙정부 관리
보장구와 편의시설	기준10. 보장구지원	
	기준11. 편의시설 완비	
긴급대피	기준12. 긴급대피시설	
	기준13. 긴급대피교육	
Ⅲ. 운영(Management & Administration)		
목적과 비전	기준14. 목적과 비전	
전략계획	기준15. 전략계획	
리더십	기준16. 리더십	
서비스품질관리	기준17. 품질관리활동	response time
정보관리	기준18. 정보관리	
입퇴소절차	기준19. 입·퇴소절차	waiting list, timeline
퇴소준비	기준20. 퇴소준비	
사례기록	기준21. 사례기록	
안전관리	기준22. 안전관리	
자문 및 평가활동	기준23. 자문	
	기준24. 평가	
자원동원	기준25. 자원봉사	
	기준26. 후원개발	
지역사회관계	기준27. 지역사회관계	
Ⅳ. 인력(Staffing)		
직원의 충분성	기준28. 직원의 충분성	caseload, workload
자격과 자질	기준29. 자격과 자질	
팀협력과 직원의 구성	기준30. 팀협력	
	기준31. 직원 구성	
선발	기준32. 선발	
훈련과 개발	기준33. 훈련과 개발	
슈퍼비전과 평가	기준34. 슈퍼비전	
	기준35. 인사고과	
내부고객만족	기준36. 내부고객만족	
Ⅴ. 서비스의 질(Quality)		
고객만족	기준37. 고객만족	
개별욕구와 선택	기준38. 서비스이용자의 개별계획	
	기준39. 서비스이용자의 자기결정	
	기준40. 사생활보호와 비밀유지	
외모, 의복, 필수품, 용돈	기준41. 외모, 의복, 필수품, 용돈	
Ⅵ. 건강과 생활양식(Health & Lifestyle)		
자기개발과 실현	기준42. 자기개발	
	기준43. 훈련과 일	
생활양식	기준44. 지역사회와의 연계	

핵심영역 (categories & items)	세부항목 (minimum standards) ※정성지표: 지방정부 관리	수행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정량지표: 중앙정부 관리
	기준45. 여가 활동	
건강	기준46. 식사와 식사시간	
	기준47. 건강관리	
	기준48. 약물복용과 의료적 처치	
위생	기준49. 위생과 방역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공동 최소기준

- 먼저 지금까지의 문헌고찰과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소기준의 틀(Framework)을 제시
- 서비스 공동 최소기준(안)의 틀에는 인권, 환경, 운영, 인력,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6개의 핵심영역이 있으며, 각각의 핵심영역에 따라 총 26개의 기준이 있고, 각 기준에 따라 총 43개의 지표로 구성
- 6개의 핵심영역은 인권, 환경, 운영, 지역사회와의 관계, 인력, 서비스 등임. 보통의 경우, 시설의 하드웨어와 관련한 환경, 시설의 경영을 주로 일컫는 운영, 시설의 인력과 서비스의 질 등이 핵심영역이나 본 연구에서는 인권 영역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영역을 강조하여 이 두 영역을 별도로 분류
- 공동기준은 전문가 포커스 토의를 통해 수정되어 각각의 시설별 최소기준 마련에 반영
- 사실 공동 최소기준은 각 시설별 최소기준 마련을 위한 준거틀

<표 2-3> 사회복지생활시설 서비스 공동 최소기준

핵심영역	기 준		지 표
1. 인권	기준1	비밀보장	비밀보장
	기준2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 제공, 자기결정권
	기준3	고충처리 방침	고충처리 방침, 처리기간
	기준4	차별금지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기준5	정치활동 보장	정치활동 보장

핵심영역	기 준		지 표
2. 환경	기준6	시설의 위치	접근성
	기준7	시설의 설계외 규모	쾌적·편리·충분성, 안전성
	기준8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3. 운영	기준9	사명	사명진술
	기준10	법인이사회	법인이사회의 활동, 시설장 선임, 법인이사회의 구성, 법인이사회의 개최
	기준11	목적과 비전	목적 진술, 비전 진술
	기준12	전략계획	전략계획
	기준13	정보관리	정보관리 지침, 사례기록, 행정기록
	기준14	평가	조직평가, 사업평가, 효율성평가
	기준15	재무관리	예산집행, 재무보고, 회계의 전산화
4.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준16	자원동원	후원활동의 효율성, 홍보물의 진실성, 후원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기준17	투명성	정보공개
	기준18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의 실시
5. 인력	기준19	직원의 충분성	직원의 충분성
	기준20	자격과 자질	법적 자격과 경험
	기준21	직원의 선발	직원의 선발
	기준22	훈련과 개발	훈련과 개발, 신입직원의 교육
	기준23	슈퍼비전	슈퍼비전
	기준24	인사평가	인사평가
6. 서비스	기준25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대기시간
	기준26	서비스 결과	자기효능감, 사회참여. 지위의 변화, 서비스 만족도

<표 2-4>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공동 최소기준

핵심 영역	기 준	지 표	
1. 인권	기준1 비밀보장	지표1.1.1 비밀보장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기준2 정보제공	지표1.2.1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 안내서, 최근의 기관평가

핵심 영역	기 준	지 표	
			보고서, 고충처리방침, 이용자의 권리[5], 기관 라운딩 등이 포함된다.
		지표1.2.2 자기결정권	직원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다만 서비스 계획을 위한 사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며,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한다.
	기준3 고충처리 방침	지표1.3.1 고충처리 방침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토로하고 이러한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을 즉각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충처리 방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된다.
		지표1.3.2 처리기간	서비스 이용자가 제기한 불만은 최장 30일 이내에 처리되어 이용자에게 모든 처리과정이 최종 보고되어야 한다.
	기준4 차별금지	지표1.4.1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조직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 기호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감한 방침을 갖고 있다.
	기준5 정치활동 보장	지표1.5.1 정치활동 보장	서비스 이용자는 모든 형태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존중하고 나아가 이를 촉진한다.
2. 환경	기준6 시설의 위치	지표2.6.1 접근성	건물의 위치는 이용자, 이용자 가족, 대리인 등이 접근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주차, 대중교통이용 등의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다.
	기준7 시설의 설계와 규모	지표2.7.1 쾌적·편리·충분성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은 이용자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건물의 공간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지표2.7.2 안전성	건물은 법적 안전기준에 부합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기준8 편의시설	지표2.8.1 편의시설 설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법에 따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운영	기준9	지표3.9.1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인 사명(mission)이 법인

핵심 영역	기 준	지 표	
	사명	사명진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식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조직의 활동이 사명진술(mission statement)의 내용과 일관성을 갖는다.
	기준10 법인이사회	지표3.10.2 법인이사회의 활동	법인이사회는 조직의 장·단기 계획을 세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결정하고 이에 관련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결정한다.
		지표3.10.3 시설장 선임	법인이사회는 시설장을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하며 시설장의 수행능력을 매년 평가한다.
		지표3.10.4 법인이사회의 구성	법인이사회는 조직의 사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사들로,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로 구성하며,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다.
		지표3.10.5 법인이사회의 개최	조직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자주(연간 4회 이상) 법인이사회를 개최한다.
	기준11 목적과 비전	지표3.11.1 목적 진술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이 문서를 통해 명확히 진술되어있으며 기관은 매년 이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
		지표3.11.2 비전 진술	성공적으로 조직의 사명을 수행하는 조직의 미래 모습을 담은 조직의 비전이 문서를 통해 명확히 진술되어 있다.
	기준12 전략계획	지표3.12.1 전략계획	조직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검토되어 수정된다.
	기준13 정보관리	지표3.13.1 정보관리 지침	조직은 사례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정보 관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지표3.13.2 사례기록	서비스 이용자의 종합적인 정보는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의 주요한 생활사건 등의 발생 시마다 개별적으로 갱신되며, 기록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 본인이 접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년 이상 보관된다.
		지표3.13.3 행정기록	조직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미 있는 행정정보들을 기록하여 조직의 지침과 법에 따라 관리한다.

핵심 영역	기 준	지 표	
	기준14 평가	지표3.14.1 조직평가	조직은 매 3년에 한 번씩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외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점검하고 조정한다.
		지표3.14.2 사업평가	조직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한 번씩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 혹은 종료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지표3.14.3 효율성평가	조직은 자신의 사명과 관련한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질적 및 양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의 내용을 개선한다.
	기준15 재무관리	지표3.15.1 예산 집행	조직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된다.
		지표3.15.2 재무 보고	조직의 내부 재무제표는 분기별로 작성되어 이사장에게 보고되며, 예산과 실제 지출의 차이는 명확히 확인되며 설명될 수 있다.
		지표3.15.3 회계의 전산화	조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4. 지역사회와의관계	기준16 자원동원	지표4.16.1 후원활동의 효율성	조직의 후원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전체 후원금액의 1/3을 넘지 않으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지표4.16.2 홍보물의 진실성	후원활동을 위해 작성된 조직의 홍보물은 진실하고 정확하다.
		지표4.16.3 후원자 관리	조직은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자의 의도대로 관리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지표4.16.4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조직은 자원봉사자를 선별하고 임무를 할당하고 교육·훈련하며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평가하며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기준17 투명성	지표4.17.1 정보공개	조직은 가능한 재무자료, 조직의 사명,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이사 및 직원 명단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한다.
	기준18 지역사회연계사업	지표4.18.1 지역사회 연계사업실시	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지역 내 기업, 일반 가정 등과 같이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 영역	기 준	지 표	
5. 인력	기준19 직원의 충분성	지표5.19.1 직원의 충분성	조직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을 고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준20 자격과 자질	지표5.20.1 법적 자격과 경험	직원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한 법적 자격과 필요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기준21 직원의 선발	지표5.21.1 직원의 선발	직원의 고용은 적법한 절차와 조직의 공식적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서비스 이용자가 직원의 선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주의 깊게 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한다.
	기준22 훈련과 개발	지표5.22.1 훈련과 개발	조직은 직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훈련 계획을 1년에 최소 40시간 이상 실시하며, 이의 효과성은 매년 평가되어야 한다.
		지표5.22.2 신입직원의 교육	조직은 신입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내용에는 조직의 인사관리 지침과 절차, 직무내용, 서비스 최소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입직원의 교육은 입사 후 7일 이내에 시작하여 10주 이내에 끝마쳐야 하며, 30시간 이상 이루어져야한다.
	기준23 슈퍼비전	지표5.23.1 슈퍼비전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슈퍼비전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슈퍼바이저를 통해 1년에 최소 6회 이상의 공식적인 미팅을 통해 제공받는다.
	기준24 인사평가	지표5.24.1 인사평가	조직은 직원의 업무성과를 정기적(연간 1회 이상)으로 서면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6. 서비스	기준25 서비스 과정	지표6.25.1 서비스 과정의 참여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가 과정에 충분히 참여한다.
	기준26 서비스 결과	지표6.26.1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 첫째,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으며, 둘째,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

제3절 개념 및 정책 사례

1. 노인 및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

❍ 노인의 개념

– 우리나라 노인복지 관련 서적에서는 브린(L.Breen, 1976)과 1951년 국제노년학회의 정의를 주로 인용하고 있음. 브린(L.Breen)은 노인을 ① 생리적·생물학적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③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

– 국제노년학회(1951)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

– 다음의 다섯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을 노인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

•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생활상의 적응능력이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하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 노인이란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생리, 심리,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자립적 생활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 노인의 범위

– 노인 또는 노령자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함

–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 고령자는 55세이상,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
-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주로 65세이상 인구를 말함

(2) 노인복지 개념

❍ 노인복지의 개념

- 모든 노인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

❍ 노인복지의 특성

- 대상 : 최근의 노인복지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을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 주체 : 민간부문에 속하는 개인과 가족, 시장, 그리고 공공부문에 속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노인복지의 주체가 됨
- 목적 :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 유지,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문제의 예방과 해결, 사회 적응과 통합의 성취
- 수단 : 현금 또는 현물 급여와 비물질적 서비스
- 방법 :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으로 사회복지의 두 가지 접근방법인 거시적 접근, 즉 정책과 미시적 접근, 즉 임상적 실천으로 나뉨

❍ 노인복지의 목표

- 노인의 안정된 생활유지: '국민적 최저수준 이상'이라는 소극적 생활보장의 기준보다는 '최적 수준의 생활'보장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생활보장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 노인복지는 노인이 지닌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욕구 충족을 지원하고, 다양한 생

활영역에서 야기되는 노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통합의 유지 : 노인의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고,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여,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함께 평생 동안 쌓아 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노인복지의 원칙

- 노인복지의 원칙은 국제연합(UN)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음.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이라는 원칙을 반영하여야 함(보건복지부, 2000).

❍ 노인복지의 법적기반

- 노인복지법이 모법(*母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지의 모법으로서, 현재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법률
- 노인의 건강 유지, 노후생활 안정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

2. 노인복지 관련 정책

(1) 개념

❍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 노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도원칙과 계획

❍ 노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형성과정

– 노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목표 : 노인복지의 목표와 동일

• 정책수단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 법령,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포함됨

• 주체 :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 정책의 대상 :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 또는 제한된 범위의 노인

–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정책의제의 선택→ 정책 결정→ 정책 집행→정책 평가

❍ 노인복지정책의 급여유형과 전달체계

– 급여유형 : 소득보장급여, 고용보장급여, 주거보장급여, 의료보장급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전달체계 :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뉨

– 공공전달체계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가정보건복지심의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과 연금보험국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업무를 수행

–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읍·면·동단위에서 노인복지관련서비스를 노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함

– 민간전달체계 : 비영리법인, 기업, 개인 등이 노인복지생활 시설과 노인복지이요이설을 설치·운영하여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

❍ 노인복지정책의 재정

– 민간전달체계 : 비영리법인, 기업, 개인 등이 노인복지생활 시설과 노인 노인복지예산의 상대적 비중은 1982년 정부예산의 0.01%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는 0.42%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노인보건사업의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예산액과 비중이 줄어들었음

- 반면,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교통수당까지를 포함하면 노인복지 예산의 총액과 상대적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복지구조가 사회보험 위주로 발전되어,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지출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임

❍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서는 ① 의식주 등 기본생계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빈곤문제는 소득보장, 주택보장, ② 질병과 보호부양의 애로 등과 같은 건강문제는 건강보장, ③ 고독과 소외, 무위(無爲)의 문제는 고용보장과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음

(2)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 소득보장

❍ 소득보장의 개념

- 소득보장 :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
- 분류 : 노후소득보장의 방식이 직접적 현금 급여의 지급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구분
-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행되는 공적 부조, 교통수당과 같은 사회수당,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 보장체계
-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 경로우대제 등의 비용할인,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의 취업증진 프로그램, 매점 설치 및 전매품 판매인 우선지원, 상속제, 소득세 공제 등의 세제감면혜택

<표 2-5>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기본 개념

종류	세부 내용
사회보험	- 피보험자의 기여, 즉 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제도 - 재정은 3자(본인, 고용주, 국가) 기여방식을 채택하며, 관리는 국가담당 - 원칙: 자조성, 사회성, 보험성, 부양성, 강제성 - 경로연금은 공적 부조식 공적 연금이지만 조세를 기본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적 부조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공적 부조	- 최저수준 이하의 개인(가족)에게 최저생계비 미만 수입만 국가가 무기여로 보조하는 방법 - 원칙: 생존권 보장, 평등 보장, 최저생활 보장, 보충성 - 자산조사에 의한 개인욕구의 측장과 확인을 통해 급여기준 설정 - 전체 국민이 최저한도 이상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수당	- 일정 범주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조세에 의하여 일정액의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예: 노인교통수당) -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통합 효과 추구

❍ 현행 소득보장체계

–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 경로우대제 등의 비용할인, 취업지원센터, 시니연금제도

• 공적 연금 : 소득 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력,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책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 연금과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로 구분되며, 이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적 부조식 공적 연금제도인 경로연금제도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 : 가장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로 1988년에 도입됨, 아직까지 본격적인 노령연금 급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며,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등의 가입자 구분에 관계없이 월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함. 이러한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특수직역종사

자의 경우 55세)에 도달한 경우에 기본 연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중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거나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됨. 10년 미만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표 2-6> 국민연금의 종류별 급여요건과 수준

종 류	급여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지급	기본 연금액의 100%
장애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시	장애 정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60~100%
유족연금	가입 중인 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반환일시금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입자	납부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표 2-7> 노령연금 수급액

(단위: 원/월)

등급	표준 소득월액	연금 보험료	가입기간과 급여액		
			특례(5년, 25%)	감액(10년, 47.5%)	완전(20년, 100%)
1등급	220,000	19,800	66,990	127,290	220,000
23등급	1,060,000	95,400	98,490	187,140	393,980
45등급	3,699,000	324,000	193,740	368,110	774,98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인구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의 단기간의 빠른 확대는 국민연금제도의 성과인 동시에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져야할 사항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제도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연금기금의 존재, 기금의 효과적인 관리 운용, 소득파악 인프라 미비로 인한 가입자간의 비

용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

- 경로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의 소득보장 지원으로 노후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해 도입한 공적 부조식 공적 연금.

– 공적 부조제도

- 공적 부조 :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수립한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1944년 조선구호령의 제정으로 형식적인 공공부조의 형태를 갖춘 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공적 부조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 10월에는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부조제도. 저소득층, 실업자, 노인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강화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표 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인 43만원, 2인 73만원, 3인 97만원, 4인 120만원, 5인 140만원, 6인 160만원(7인 이상 가구원 1인당 20.4만원 추가)
	재산기준	2003년부터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건축, 토지, 주택, 임대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승용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에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종류별 가격-기본 재산액-부채)×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	생계급여액	현금급여 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
	현금급여액	1인 37만원, 2인 62만원, 3인 83만원, 4인 103만원, 5인 120만원, 6인 137만원 ※ 주거급여: 1~2인 33,000원, 3~4인 42,000원, 5인이상 55,000원

자료: 보건복지부(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사회수당

• 사회수당 : 국가가 조세로서 일정한 액수의 현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정 인구집단(예: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적 기본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경제적 비용효과보다는 사회적 통합효과를 중시하는 공적 부조제도의 일부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수당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6]이 있으며, 개별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지역별 대중교통 요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시·도가 예산의 15%, 시·군·구가 75%를 부담

– 사적 소득보장체계

• 사적 소득보장체계 : 개인적 소득보장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며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생활부족분을 사적으로 보충하는 데 본 제도의 의의가 있음

• 종류 :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 퇴직 연금제도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업복지제도

• 퇴직금제도(1953년부터 도입되어 시행, 기업도산시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님) →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됨(2005년 12월부터)

• 개인연금제도 : 노후 소득보장 연금 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불입하고 수령할 때는 월급여식으로 받는 연금 상품을 의미

6) 현재 교통수당 이외에 공무원에게 노부모 봉양수당으로 노인 1인당 월 15,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국가 조세가 재원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수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제한된 직종에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회수당제도라고 하기는 어려움

–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 경로우대제도 : 노인의 지출을 경감시켜 노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 시행절차 :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0년 5월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8개 업종에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함. 그러나 1989년 6월에 민간부문의 경로우대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공공부문의 경로우대제도만 실시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로우대제도는 업종이나 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따르고 있음
- 공영 경로우대제도의 주요 내용 : 철도의 경우 통근열차는 50%, 무궁화호, 새마을호 그리고 KTX는 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음.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의 운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 미술관의 입장료는 100% 할인되며, 국공립국악원의 입장료는 50%이상 할인됨
- 민간부문의 경로우대제의 주요 내용: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음. 목욕이나 이발 등 관련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경로우대제를 실시
- 세금 감면제도 :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세금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간접적 소득보장효과를 갖게 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000만원씩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음.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직계존속 노인 1인당 부양가족공제 연간 100만원, 65세 이상의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인 1인당 연간 100만원(단,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의 경로우대공제를 해 주는 등의 소득세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기타 :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보호받고 있는 노인과 지역사회주민,

기업체, 공공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등과 결연을 맺어 후원금 지원, 초청, 방문, 위문 등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후원금은 1계좌 1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후원금액의 70%는 결연노인이 사용하고, 30%는 시설입소자의 특별영양급식비, 체육행사비로 공동 사용

❍ 노후 소득보장의 시사점

– 첫째,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이 미흡-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층체계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적 부조제도를 마련하거나 정로연금제도를 개편 또는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둘째,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점-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연금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유지가 가능해질 것임

–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보호문제와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 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제도를 도입·실시하여야 하며, 생계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 넷째,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보조수준이 취약 : 경로우대제도의 할인업종과 할인율을 더욱 확대하고 각종 세제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해야 하며, 노부모 봉양수당을 민간기업체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함

– 다섯째, 사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력이 미흡 : 기업복지 차원에서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개인연금이나 개인저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고용보장

❍ 고용보장의 개념

– 고용보장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장제도

– 고용정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장정책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노사협력, 고용안정, 임금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노인복지분야의 고용보장은 고령자 취업촉진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현행 고용보장체계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50~55세 미만의 준고령자에 대한 고령자의 고용 촉진, 고령자의 취업 지원, 정년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고용촉진사업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으로 고령자 기준 고용률,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② 취업지원사업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 취업지원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기타 취업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3조 2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취업알선기관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취업지원센

터,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박람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등의 노인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① 노인취업알선센터 : 대한노인회의 노인취업지원센터

- 목적 : 노인인력의 일자리 알선 및 상담, 지속적인 인력관리 및 인력수요처 발굴, 직업교육,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통하여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소득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 센터에서는 노인인력에 대한 취업상담과 알선, 사후관리, 지역내 노인인력 수요업체의 발굴과 관리, 지역 내 노인인력지원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지방노동사무소 등 노인취업관련 기관과 상시 연계체계 확립 등을 통하여 노인의 취업을 알선해야 함

② 시니어클럽

- 시니어클럽(senior club) :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목적 :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인력의 창조적 활용을 통하여 국가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함
- 참여, 자율, 협동 그리고 연대의 원칙하에서 운영, 사업단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65세 이상 노인을 원칙적인 사업대상으로 함
- 사업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전문수행, 노인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업의 연계·조정 등,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도록 규정됨

③ 노인 일자리 사업

- 노인 일자리 사업 : 고용정책기본법 제16~18조에 의해 실시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노인복지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

으로,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4대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인 고용촉진사업임

- 목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유도,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④ 노인 일자리 박람회

- 노인일자리 박람회 : 구직희망자와 구인업체가 직접 연결을 통하여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

⑤ 노인인력전담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2에 기반하여 설치된 노인인력 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 첫째,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이 심화되고 있음- 정년 연장, 직종, 직급 및 성별 차등제도의 개선, 임금조정옵션제 등과 같은 부분적 정년제도의 도입, 퇴직 후 재고용제도의 다양화, 퇴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대비책 등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 준고령자를 50~55세 미만으로 규정,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50대의 중장년층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노인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함 :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고령자 기준 고용률에서 연령별 고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노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고령자 고용 기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은 강화해야 함

- 셋째, 노인에 대한 고용보장이 고용기회의 확대에만 초점 :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
- 넷째, 노인복지법에 의해 시행되는 노인취업지원기관에 대한 낮은 지원수준 : 노인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는 사업참여기간의 확대, 보수기준의 인상, 전문적이고 안정적 일자리의 지속적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함
- 다섯째, 노인의 고용정보 제한과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도가 낮음 : 노인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노인복지관이나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확대·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주거보장

❍ 주거보장의 개념

- 주거보장 : 주택보장을 전제로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노력, 즉 노인을 위한 계획주거를 통하여 주택의 복지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함
-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목적 : 정주권(定住權)의 보장, 최소거주면적의 확보, 거주기회의 평등보장, 정상화(normalization)의 실현
- 주거보장의 방법 : 재가목적 주거보장과 시설보호목적 주거보장으로 구분
- 재가목적 주거보장 :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주택수리 및 개조비 융자,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입주권 우선 부여 등
- 시설보호목적 주거보장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과 운영이 지원이 포함됨

❍ 현행 주거보장체계

-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저소득 무주택 재가노인을 위한 극히 제한된 수의 주거보장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노인주거보

장사업은 노인복지법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조항과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항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 설립과 운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노인 주거형태 분류
  - 독립 거주 유형 : 일반적인 주거형태, 비교적 건강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의 거주형태.
  - 서비스형 거주 :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동년배의 노인이 입주하여 노인을 위한 건강, 여가 등의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형태, 공동생활을 할지라도 개인생활을 보장받게 되며,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 모델지역(고령타운)이 이에 해당
  - 복지시설 거주 : 고령자들이 입소하여 보호적인 환경에서 집단생활을 하눈 거주 형태, 노인복지법상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 의료시설 거주 : 질병의 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중점 제공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형태, 보건소, 병·의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 일시 거주형 : 이용시설에 잠시 머무르면서 숙식이나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주거형태, 노인복지법상의 단기보호시설
- 노인복지시설
  -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 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
- 재가 목적의 주거보장정책
  - 재가목적 주택보장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지

원되고 있고, 1995년부터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음

- 반면, 저소득 노인에게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대한 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의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이 담당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노인 주거개선사업단을 활용하여 도배, 장판, 수도, 보일러, 전기, 가스, 가전제품 수리 등의 노인주거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 주거보장의 시사점

– 첫째, 주거보장보다는 주택보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노인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특화주택 개발 및 공급이 필요

– 둘째,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부재 :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지원대책이 필요

– 셋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제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이나 시설은 고소득층 노인이거나 중증질환자가 주로 입소해 있으며,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적합주택, 고령친화모델지역의 고령타운의 공급확대 필요

– 넷째, 노인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 체계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 필요

□ 건강보장

❍ 건강보장의 개념

– 건강보장 :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

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

- 형태 : 공적 부조방식(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과 건강보험(서비스 이용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부 금액을 본인이 부담)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 건강보장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데, 공적 부조방식의 건강보장체계는 저소득층 노인이라는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성격이 강한 보장방식임

❍ 현행 건강보장체계

-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보장체계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수발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건강보험 : 질병, 상해, 분만 등으로 말미암아 드는 비용이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의 중핵을 이루고 있음
  - 1977년에 공무원사립학교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이 실시, 1981년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개막 → 2000년 7월 이러한 세 가지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
  - 노인의 건강보험 이용현황 : 1인당 의료비는 155만원 정도로 64세 이하 일반 의료비에 비해 3.0배 정도 높은 편이고, 수진율도 연간 27.47회로서 1.9배, 건당 진료일수는 9.43회로 1.6배, 건당 진료비는 49000원 정도로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모든 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관련 주요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 의료급여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제도
  - 1979년 의료보호제도로 시작→ 2001년 10월 의료급여제도로 변경됨
- 노인건강지원사업
  -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업 : 노인건강진단, 노

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치매상담센터 운영,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 전국 노인건강축제가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하여서는 공립치매 요양병원의 설치운영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노인건강증진 허브(hub)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요양서비스를 국가·사회의 공동책임하에 제공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치료(cure)'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수발서비스(care)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건강보장의 시사점

- 첫째,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노인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성인기부터의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의 강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도입, 작은 질병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사회적 입원의 억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축소 등과 같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의료기관의 시설설비 비용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둘째,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에 있어서의 차별문제, 현재 노인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아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진료서비스, 보건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대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기관의 확대 설치가 요구됨

- 셋째,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노인건강진단사업의 대상은 저소득 노인에 국한, 치매상담센터의 운영비 지원 수준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질병 예방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노인건강진단의 수준을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종합건진 수준으로 개선, 질병 발견 시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함, 치매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함
- 넷째, 치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취약함- 노인 수발보험제도에서는 가정중심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치매나 중증질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

□ 사회적서비스

❍ 사회적서비스의 개념

-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이해
  -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 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로서 노인복지서비스라고 부름
  - 특성 : ① 노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개별성, ② 일상생활의 곤란을 겪는 노인의 의존상태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예방성, ③ 노인의 선택가능성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도를 제고해야 하는 접근성, ④ 입소서비스-통소(通所)서비스-재가서비스-이용서비스(장소), 장기보호-중간시설-단기보호-주·야간보호(기간과 기능)를 포괄하는 다양성
  - 현황 : 노년기에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며, 노후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중에

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은 매우 높음 : 클라이언트 요인, 서비스 제공자 요인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요인 등과 같은 서비스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평가됨

❍ 현행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체계

–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장소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재가노인복지사업만을 의미하며, 서비스 내용면에서는 상담, 여가, 교육, 봉사 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주로 의미함

– 재가노인복지사업

• 재가노인복지사업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사업의 기본적 목적으로 함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사업대상 :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③ 신체적 ·정신적·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과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무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 가구의 저소득노인은 실비, 무료와 실비 이용대상자를 제외한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기관은 1996년 53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시설 유형 구분은 없어지고 재가노인지원센터로 통합

① 방문요양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불리는 재가노인복지사업

•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

- 대상: 수발 필요시간이 50분 이상인 요양등급 1~3등급 이내의 노인
- 장기요양요원이 제공 서비스 : ①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신체적 수발서비스, ② 가사지원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③ 개인활동서비스(외출시 동행·부축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④ 우애서비스(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⑤ 상담 및 교육서비스, ⑥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활동 등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야간 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시간 또는 야간에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목적 :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도모,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경감

③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및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가노인복지기관

④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이동목욕차량을 갖춘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단체 등에서 사업을 시행
- 방문간호서비스: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 등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 간호 및 요양관리지도 등 간호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 노인돌보미 바우처(voucher)사업 : 차상위 이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중증 노인에게 가정수발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2007년에 도입된 재가노인복지사업
- 대상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제시한 평가판정 조사표에서 건강상태 평가판정 결과 요양필요 점수 40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독거노인 등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능력이 없는 중증노인, 2순위는 맞벌이 부부 또는 근로능력자 홀로 중증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3순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노인을 요양필요 점수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봉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일정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함,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과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별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⑥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안전확인서비스와 생활교육 및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

–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로 구분되며,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①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 경로당(노인정)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토대로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한 경로당 선정하고, 이들 경로당에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통신교육, 레크레이션 활동, 건강운동 활성화,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

②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 시설

③ 노인교실 운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노인교실은 등록 노인교실에 비해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됨

④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 지역여건별로 경로식당 봉사활동,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말벗서비스, 노인복지시설봉사활동,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을 실시

⑤ 노인휴양소

- 노인휴양소는 위생시설, 여가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고 단기간 동안 노인의 심신 휴양을 지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장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국외사례
제2절 국내사례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국외사례

1. 대만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만의 노년기 문제는 국민의 건강생활의 충족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은퇴 후의 생활이 사회문제로 대두

- 노년기의 여가 시간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점차 증가
- 노년기의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역할 상실, 고독감, 무료함 등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의는 은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노인의 역할 상실 또는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인한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는 것이 과제로 등장

❍ 따라서 정부는 역할 상실 또는 여가투성이라는 상황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리고 노인 스스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여가, 오락서비스 시책에 관한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인교육
  - 노인교육의 목적은 현대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노인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를 교육활동을 통해서 노인 스스로가 터득하도록 하는 데 있음
  - 때와 장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을 배우게

하는 그 매개체의 역할은 방법이나 선택 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대표적 노인교육시설은 장청학원(Senior Learning Centers Evergreen Institutes)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청학원의 주요 교육내용은 교양(동양화, 서예, 음악, 무용, 헬스 등), 언어학습(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등), 상식(의료, 보건, 법률 등), 정보화(인터넷, 쇼핑몰, 워드 등)이며 중앙정부의 장청학원 보조 규정에 따라 1개 강좌에 20명 이상 노인을 모집하여 3개월 이상 개설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과목당 월 TWD 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목당 연 보조금 상한액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청학원은 2004년 264개소에 1,519개 강좌가 개설되어 51,973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
- 그 밖에 별도의 퇴직 대기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노후 생활 계획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보장 관련법령 및 노인복지서비스 시책을 이해하고 심리적, 생리적 및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직무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 인력은행도 설치하여 노후 생활에 적합한 취업직종 개발과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노인문화센터

- 노인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의 장이라 할 수 있는 노인문화센터(Senior Recreational Centers)는 30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진·시(Village-Town-City-Level)에는 의무적으로 1개소 이상 센터 설치를 의무화
- 센터의 설립 운영 지원은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서비스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자치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노인여가활동, 건강문화활동, 문예활동, 예술활

동, 기예 활동, 연수 및 친선활동 등을 전개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센터를 재가복지서비스, 노인주간보호, 노인교실, 영양음식서비스, 취업알선 집단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 노인클럽
  - 지역사회 노인이 여가를 즐기며 인생의 황혼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일종의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지역 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노후 건강 유지, 소득활동,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친선활동의 장소로 2004년 전국의 3,661개소의 장춘구락부(longevity clubs for senior citizens)라고 하는 노인클럽이 조직되어 운영
  - 또한 노인클럽에서는 노인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데, 2004년 3,819개의 노인자원봉사대가 조직되어 활동
- 심리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노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북부, 중부, 남부 3권역에 노인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 5월 '옛 친구 전화'(080-022-8585) 전화를 개통, 노인심리, 의료보험, 위생보건, 환경적응, 인간관계, 복지서비스 알선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노인, 가족, 노인단체에 자문서비스를 제공
  - 3권역의 노인자문서비스센터의 2004년 실적은 전화상담 8,460여 건, 면담 1,248건, 우편상담 98건, 방문 168건, 전화문안서비스가 9,856건으로 노인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생활적응력 증진과 노인권익보장을 위해 노인생활시설과 일반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인권침해에 예방을 위한 교육은 물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실시

2. 프랑스

❍ 여가와 문화 선용은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지역 단위 차원의 노인 클럽(the third age clubs)의 조직 및 운영 : 1975년 제7차 경제 사회 개발 계획의 중점 목표 중의 하나 이었던 지역사회에 의한 노인 보호 원칙(community care)의 일환으로 본격화된 것으로 현재 지자체 단위의 노인 클럽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단순한 친교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 전문 기술 습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편의 프로그램이 시행 : 버스 이용에서부터 항공 여행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소득에 따라 할인 혜택 및 무료 이용권이 보장
    • 문화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연극과 연주회, 극장, 화랑과 박물관 이용시, 교통편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할인 및 무료 혜택 제공
    • 프랑스의 여가 및 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 : 프랑스의 대부분 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노인대학(Université de troisième âge, UTA)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인대학은 1973년에 Pierre Vallas에 의하여 Toulouse에 처음 설립된 후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
    • 재원은 회원의 등록비, 지역사회 내의 교육기관 혹은 지자체에 의해 조달되며 일부는 교육부에 의해 지원
    •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이며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수업료는 저렴

❍ 이상의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고령자들은 여가와 문화생활을 영위
  –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프랑스 노인들은 여타 연령 인구 집단 못지않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영화, 콘서트, 박물관, 전시회 등의 참관 빈도에 있어서 60세

이상 노인 중 1달에 한 번 이상 간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남(2004년 기준, INSEE)

- 이는 전체 인구 집단 평균 32%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연령 집단 중 가장 높음
- 반면 한번도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인데 이는 평균 28%보다 낮음

❍ 뿐만 아니라 100명 중 80명은 한 가지 이상의 클럽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2000년 기준, INSEE)

- 프랑스 노인의 문화 접근권은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독일

❍ 여가활동은 산업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전형적 현상

- 대부분 산업화가 더디게 발전되고 있는 국가들은 노동 시간의 규정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업 시간이 길고 또 공식적으로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 시간이 없는 것이 보통
- 일반적으로 여가활동 가능성에 대한 요소는 휴가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상으로서 물리적·유형적 속성을 지니며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됨

❍ 따라서 여가활동 요소의 구성은 휴가 수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일차적 공급 요소와 간접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부차적 공급 요소로 구분이 가능

- 먼저 일차적 공급 요소는 여가 공간 및 주요시설 그 자체이며, 부차적 요소는 일차적 공급 요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보완적 여가 공간 및 편의시설 등을 의미
- 그럴 경우 여가 공급 요소는 가치에 있어서 서열이 있으며, 시설수준이 좋을수록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또한 자원 활용도가 클수록

그 가치가 부각되는 여가활동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여가활동 가능성 시설들은 자본 투자도가 낮고 야생성이 큰 자원으로 토지나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가 공급 부문이 주라 할 수 있음
- 공원은 평소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라 해도 과원이 아니다. 가볍게 휴식이나 산책 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작은 공원에서부터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단위 공원까지 독일에는 다양한 공원들이 존재하고 있음

❍ 독일어로 쿠어(Kur)는 치료를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순수하게 치료라는 의미보다 온천요양을 뜻하는 경우가 많음

- 쿠어는 노인 세대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 주치의가 진단서를 발부해 줄 경우 대부분의 비용이 건강보험회사에서 지불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음
- 또한 요양시설 주변 환경이 노인 세대 위주로 편안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독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세대에게 요양지에서의 생활은 그만큼 소외감이나 적막감을 감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쿠어오르트(Kurort)라고 부르는 독일의 공인 요양지 중에서 온천요양지(Therme Kurort)의 수효는 대략 220개 정도 존재

- 독일인이 가장 즐겨 찾는 온천은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바트 나우하임(Bad Nauheim)이지만, 국제적으로 독일온천의 진수라고 하면 역시 바덴바덴(Baden Baden)이 있음
- 바덴바덴의 온천수질은 심장동맥 질환, 류머티즘, 부인병, 호흡기질환 등에 효과가 높기 때문에 노인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임
- 온천으로 대표되는 요양 공간과는 달리 독일의 휴양지(Erholungsort)

는 가족 또는 여행자들에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허락함으로써 산책이나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하며, 때로는 카지노나 쇼 행사를 제공하여 미국적 리조트(resort)의 모습을 제공

- 독일인이 즐겨 찾는 주요한 휴양지는 대부분 해변이나 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오스트세(Ostsee) 근처의 '인젤포엘(Insel Poel)'와 에어푸어트(Erfurt) 근교의 '홀펠트(Hollfeld)' 등이 대표적임

❍ 스포츠 시설은 공간에 비해 자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며, 인위성이 큰 휴가공급 부문으로서 도시 내 혹은 도시 근교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형 성격을 내포

- 세계 최초로 조직적 스포츠 프로그램을 실시한 독일은 세계 제1차 대전을 전후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체육관, 수영장, 목욕탕, 기타 운동경기를 위한 건물들에 시설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실시한 황금 계획(Golden Plan)의 각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스포츠·휴가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

❍ 독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스포츠클럽이 성행했던 전통이 있어 보통 국민 9명 당 1명 이상은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활동

-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안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클럽이며, 단순히 스포츠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사교의 장소로도 활용
- 모든 스포츠클럽은 그 발족 시기가 명기되어 있고, 또 독일인 자체가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 · 노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케겔클럽(구주회)이나 부부댄싱클럽은 그 전통이 무척 오래됨

❍ 황금계획안에 따르면 5천명 이상 지역 주민이 있는 곳은 수영장과 체육관 그리고 축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일반 스포츠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약 86,000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전체

회원 수만 무려 2,700만 명에 이르고 있을 만큼 독일인에게 여가 스포츠의 영향력은 매우 큼

❍ 이 밖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독일인에게 지대한 관심과 높은 호응도를 갖고 있는 예술·문화시설로 연극, 음악, 오페라, 발레, 영화, 박물관 등이 있음

- 독일인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문화시설 공간은 영화관으로서 월 평균 3.43회 이상을 관람하며, 연극도 월 0.4회, 박물관 월 0.35회, 오페라 월 0.28회 그리고 콘서트는 0.16회 등 다양한 분포도를 나타냄
- 독일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슈타트팔라스트(Friedrichstadtpalast), 포츠담광장의 뮤지컬극장 그리고 바리에떼 빈터가르텐(Variete Wintergarten) 등은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세계적 명소로 성장함

❍ 특히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각종 오페라와 연극이 주말마다 개최되지만 세계 각국에서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되면서 대도시의 관광 수입에도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유명한 오페라의 경우 몇 년씩 막이 오르지만 몇 개월 전부터 표를 예매해야 관람할 수 있을 만큼 독일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음

4. 일본

❍ 고령사회의 문제는 복지, 보건, 의료의 영역만이 아니고 노동과 여가, 문화, 사회참가의 영역도 포함함

- 특히 학습·교육·사회참가 영역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인생의 후반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삶의 보람의 관점에서는 생애학습과 사회참가의 추진은 장기화 된 고령기의 충실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과제임
- 2001년의 “고령사회 대강”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그 중에도

"가치관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학습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삶의 보람을 충족시킬 기회를 찾고,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애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학습 기회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고, 그 성과가 적절하게 평가되는 생애학습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과, 또 "노인이 연령에 관계없이 다른 세대와 함께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삶의 보람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노인의 사회참가활동을 촉진함과 함께 노인이 자유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조건의 정비를 도모한다".

❍ 노인의 교육·학습은 두 가지의 측면이 존재
- 개인으로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
-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존재 의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 후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자원봉사활동이 큰 관심이 축적
- 자원봉사활동과 생애학습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992년 생애학습심의회 답신인 "앞으로 사회의 동향에 대응한 생애학습의 진흥 정책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
  -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가 자기개발, 자아실현과 연계되는 생애학습임
  -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으로서 생애 학습이 있고, 학습의 성과를 살린 것이 실천으로서 자원봉사활동임
  - 우리들의 생애학습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의해 생애학습의 진흥이 한층 나아짐 : 즉 많은 자원봉사활동은 생애학습에 의해 지탱되고 또 '함으로써 배우는' 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노인의 학습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교육위원회와 사회교육시설 등임

❍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학급·강좌 수는 10,685강좌이고, 공민관에서는 34,816강좌에 이름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급·강좌,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학급·강좌 중에서 노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많은 수의 노인이 이러한 학습시설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을 내포
- 생애학습은 이러한 공공의 장소 외에도 민간이 사업 주최가 되어 개설된 것도 다수 존재
- 특히 최근에는 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강좌가 개설
- '문부과학통계요람"에 의하면 개설된 강좌 수는 168,375강좌이고, 수강생은 3,082,000명에 도달

❍ 자원봉사활동은 과거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약 3,263만 명으로 자원봉사 행동자율 28.9%임

- 이것을 노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65-69세에서 31.0%, 70세 이상에서 25.5%의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 활동내용은 마을조성을 위한 활동, 자연이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대부분임
- 이 외에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노인을 해외에 파견하는 '시니어해외자원봉사활동'이 파견
- 이와 같이 노인들도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5. 미국

(1) 노인문화복지정책

□ 노인정책 일반

❍ 미국의 노인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HHS) 산하의 노화관리 행정국(Administration)에서 주로 담당

❍ 노화관리행정국 설치 이후, 1965년에 <노인관련법률>(The Older American Act of 1965)이 제정되었고, 법률에 따라 노인관련 연구, 전문인력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재정지원을 받음

❍ 1973년에는 지자체의 노인관련 서비스단체 지원프로그램 곧 '지역중심 고령화관련 서비스 지원조항'(AAA:Area of Agency of Aging)이 새롭게 추가

❍ AAA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노인의 적극적인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는데, AAA가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노인관련, 지역서비스 정보 제공, 의료보험 상담, 병원 및 시장 가는데 필요한 교통수단 마련,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퇴직 준비를 위한 교육 등
  - 노인관련 서비스 관리와 지원, 구직상담, 노인의 집 운영, 주간노인보호서비스 운영,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 노인의 독립적인 거주를 위한 서비스, 가사 도우미, 정기적인 전화 걸기, 식사배달 등
  - 노인 전용거주지 개선
  - 노인의 법적 권익도모를 위한 활동 전개

❍ 2000년에는 노인관련 법률에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위한 프로그램 (the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이 추가되어,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십만의 가족을 지원

❍ 미국의 노인 관련 정책수립은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민간차원의 노인관련 조직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은 바도 크다. 정부 내에 노화관리행정국이 설치되기 이전인 1950년에 미국 고령화위원회(NCA:The National Council on the Ahing)가 형성

❍ NCA는 현재 약 38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대부분의노인

복지회관(senior centers), 주간노인보호서(adult day service centers), 노인 주거환경 관련단체, 종교단체가 소속

- ❍ 미국퇴직자협회(AARP: The Association of American Retired People)는 50세 이상 연령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1958년에 설립되어 현재 회원은 약 3,500만 명 정도
- ❍ 퇴직자 조직이지만, 회원 가운데 50% 가량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 ❍ 회원의 연령대를 보면, 60세 미만이 33%, 60세 이상 ~74세 이하가 46%, 75세 이상이 21%
- ❍ 퇴직자협회의 목적이 노인의 건강·복지, 경제적 안정성, 독립적 노인의 삶 보장에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노인권익 증진 법률, 노인 소비자 관련 활동 등을 펼치고 있음

□ 노인 문화복지정책

- ❍ 미국 행정부가 노인의 예술활동 참여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주목하고, 노인의 예술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
- ❍ 전통적으로 미국은 고령화를 의학모델(a medical model)-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아프고 죽는 것으로 이해했었지만, 이제는 자산모델(an assets models)로 이해하게 되었음
- ❍ 곧, 노인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많으며, 노인이 건강하게 살아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 ❍ 이 같은 시각 전환에 힘입어, 전문가들은 예술활동은 참여자가 사회적 활동, 정신적 활동, 그리고 인식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임
- ❍ 현재 미국에서는 주로 예술진흥기금(NEA: The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에서 노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노인관련법률>(The Older Americans of Act of 1965) 제정 30주년이 되던 1995년에, 백악관에서 고령화관련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an Aging)가 개최

❍ 회의에서 NEA와 NEH(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는 예술활동 분야에, 노인이 예술가, 교육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소비자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

❍ 특히, 고령화관련회의 회장인 밥 블랭카토(Bob Blancato)는 노화관리행정국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회관, 양로원, 정신건강 관련기관, 교육기관, 대학교, 지역도서관, 노인관련 민간단체들과 연합하여 노인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 NCA에서는 노인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NEA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기준을 제시
  - 노인 예술가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 노인 예술 감상자를 적극 유치하여, 퇴임 후에 예술적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바란다.
  - 노인의 예술 및 레크레이션 관련 평생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노인이 컴퓨터 위주의 새로운 정보체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지원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 박물관과 공연예술기관이 노인 감상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 밖에도, NEA 는 현재 3년에 걸친 프로젝트로 “예술 및 문화활동의 참여가 어떻게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을 지속시키고, 고령화에 따르는 장기간 질병의 원인들을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연구하기 시작

❍ 한편, 2001년 미국 퇴직자협회(AARP), 국립고령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스포츠의학회, 노인병학회, 질병예산센터의 대표자들

은 회의를 가지고, 50세 이상 인구의 체육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청사진(The National Blueprint: increasing Physical Activirt Among Adults Age 50 and Older)을 제시

❍ 정책 제안서는 첫째, 체육활동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히고, 둘째, 노인이 체육활동을 즐기기 못하는 이유들을 열거하고, 셋째, 연구단체, 가정과 지역사회, 직장, 의료시스템,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이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음

(2) 노인 문화복지 시설과 프로그램

□ 노인복지회관(senior Centers)

❍ 노인복지회관은 1943년부터 설립되었고, 최초의 노인복지회관은 뉴욕(New york)시에 세워진 윌리엄허드슨 노인복지회(The William Hodson Senior Center)임

❍ 이후 AAA에 의하여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대상 서비스 제공의 중심자가 되었음

❍ NCA는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을 이끌며, 지역사회 이웃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인의 경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중심지”로 규정

❍ 노인복지회관 <노인관련 법률>과 AAA에 의해 꾸준히 증가

❍ 현재 정확한 통계조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미국 전역에 약 12,000개에서 16,000개 정도의 노인복지회관이 있다고 추정되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약 700만 명에 이음

❍ 노인복지회관 가운데 8,000개 이상이 <노인관련 법률>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음

❍ 노인복지회관은 규모, 시설, 서비스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 식사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
- 정보 안내
- 체육활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 레크레이션 기회 제공
- 교통 수단 제공
- 예술활동 프로그램
- 자원봉사 활동 기회 제공
- 평생교육기회 제공
- 구직 안내 및 지원
- 세대 간 화합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법률적인 인가는 NCA 산하기관인 국립노인복지회관협회(National Institute of Senior Centers)의 표준기준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노인복지회관은 운영평가도 받고 있음

□ 노인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단체

㉠ 창의적인 고령화 국립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

❍ NEA의 재정적 지원으로 2001년 설립된 창의적인 고령화 국립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 NCCA)의 설립과 운영목적은 모든 노인의 창의적인 표현능력 증진이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사회 구성원에게 이해시키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창의적인 고령화와 관련된 예술활동에 관한 정보 구축과 공유를 위한 창고의 역할
- 고령화 관련 예술 프로그램들을 평가함으로써 우수 프로그램 선정
- 노인 복지증진에 필수요건인 예술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이익단체 역할
- 노인의 삶에서 창의적인 표현이 가지는 역할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

및 기록에 대한 후원
-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인 고령화와 관련된 조사 및 정보 제공

❍ 이 가운데 특히 노인에게 예술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과 노인관련 예술단체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활동

❍ 센터는 관련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워크숍, 회의, 교육 등을 통하여 매년 수 천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미국 고령화 사회(The American Society on Aging)와 연합하여, 여름 동안 3일 동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 노령화프로그램 전문가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함

㉡ 고령자 예술프로그램(Arts for the Aging, Inc:AFTA)

❍ 1988년에 고령자 예술프로그램(Arts for the Aging Inc:AFTA)이 설립

❍ AFTA는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주간노인보호소(Senior day care centers)와 비영리양로원을 방문하여 노인에게 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 주간노인보호소와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은 대체로 치매를 앓고 있음

❍ AFTA는 모두 85개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37개 노인관련 기관들을 방문해왔음

❍ AFTA는 비영리기관으로 회원이 실제 활동을 하며, 운영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AFTA의 프로그램은 무용, 그림그리기, 드럼연주, 음악, 시, 조각, 예술기관 방문, 예술관련 강의 및 세대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임

㉢ 노인극단(Senior Theather)

- ❍ 노인극단 연결망(Senior Theatre Connetions)의 저자, 바니 보레버그(Bonnie Verenberg)에 따르면, 노인으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가 1999년에는 78개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는 409개로 증가
- ❍ 공연예술 관련 학계에도 노인들로 구성된 공연예술에 주목하기 시작
- ❍ 2002년 8월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연극학과는 처음으로 세계노인극단축제와 학회를 개최하였고, 노인들의 극단을 위한 석사과정을 마련할 예정
- ❍ 또한 2000년에 라스베가스 소재 주립대학교에서는 연극학과 내에 50세 이상의 학생들을 받아들여 노인연극 전공으로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RSVP: The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 ❍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
- ❍ 「기부와 자원봉사조사」(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2001)에 따르면, 21세기 이상 인구의 44%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였으며, 그 가운데 63%가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 그러나 이 조사에서 노인 인구가 얼마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음
- ❍ 미국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은퇴자노인 자원봉사프로그램(RSVP:The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 ❍ RSVP는 노인군단(Senior Corps)이라는 프로그램의 일부인데, 노인군단은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노인들에게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함
- ❍ RSVP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48만 명의 노인 자원봉사자가 약 6,500개의 지역사회 기관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

❍ 55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는 RSVP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기관은 ㉠박물관 및 역사관련 단체. ㉡청소년관련 기관, ㉢노인관련 사회복지 기관, ㉣예술·문화단체, ㉤교육기관, ㉥경제단체·소비자 교육기관, ㉦환경보호단체, ㉧장애인 서비스 기관, ㉨양로원 및 주간노인보호소, ㉩법·치안 관련 기관 ㉪병원·체육관련 기관 ㉫기타 지역사회 기관임

6. 영국

(1) 노인 문화복지정책

❍ 문화·미디어·체육부(The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는 교육 및 사회관련 정책분야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기하고 있음

❍ 문화·미디어·체육부가 타 부처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75세 이상 노인의 텔레비전 무료 시청
- 장애노인과 장애인의 예술기구 및 관광지 방문 영국관광위원회(English Tourism Council)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편리하도록 구체적인 시책(Accessible Britain)시행
- 청각장애 노인을 위한 디지털 위성상업 TV방송(difital trrrestrial commercialtelevision)의 문자서비스(subtitle) 확충:10년 이내에 현재 50%에서 8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사회 운동활성화 시범프로그램(LEAPS:Local Exercise Action Pilots): 노인, 특히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발작에서 회복된 노인의 체육활동 증진 정책(현재 10개 지역이 시범지역임)

❍ 국민 네트워크(The People's Network)프로젝트: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습득으로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영국 전 지역의 공공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노인관련 문화정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새로운 관객개발 프로그램'(New Audiences Programme)을 들 수 있음

❍ 이것은 새로운 예술 감상자를 개발하고, 동시에 새로운 예술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문화·미디어·체육부의 재정지원으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on England)와 10개 지역의 예술위원회(The Regional Arts Boards)가 협력하여 1998년부터 2003년 까지 운영하였는데,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임

- 예술 감상의 장애요인을 히고, 극복방안을 강구한다.
- 예술관객의 범위와 관객을 증대시킨다.
- 예술감상 공간과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 예술관객을 늘리기 위해 예술기관이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은 일반인, 청소년, 소수민족, 장애인, 가족단위 관객, 저소득층, 농촌지역 거주자, 그리고 노인이다. 이 가운데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0개의 노인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예산은 총 322,900파운드로 전체예산의 1.6% 정도다. 20개 프로그램 가운데는 옥스퍼드셔 순회연극단(Oxfordshire Tiuring Theatre Company)의 짧은 여정(Brirf Journey)처럼 양로원이나 주간보호소에 있는 노인을 찾아다니면서 예술을 공연하는 프로그램, 잉글리쉬신포니아(English Sinfonia)의 M4 프로젝트처럼 노인이 많은 공공 공원이나 쉼터를 찾아가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dma
- 또한, 노인이 교통 불편으로 예술 감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dma
- 예를 들어, 예술을 위한 초고속 네트워킹 프로젝트(The Arts Express NetWorking Project)는 농촌지역 노인의 예술 감상기회를 늘리기 위해 무료교통 서비스를 제공

(2) 노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 그곳에 가기 : 예술택시(Project : 'Getting There' Art Taxi Scheme)

- ❍ 영국 동북쪽에 위치한 게이츠헤드(Gateshead)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게이츠헤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게이츠헤드 또는 뉴캐슬의 예술극장, 박물관, 미술관에 갈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를 정부에서 보조
- ❍ 새로운 관객개발 프로그램 에서 3만 5천 파운드를 지원받아 평등한 예술(Equal Arts)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하였으며, 지방정부 도서관과 예술부서의 도움을 받음
- ❍ 택시회사가 결정되고 시범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려는 노인을 회원제로 하여 2002년부터 신청받기 시작하였고 시범적으로 회원을 60명으로 제한
- ❍ 2003년 2월까지 53명이 회원으로 신청하였고, 2003년 2월까지 택시이용 총 횟수는 388번이었음
- ❍ 회원은 회비로 3개월에 5파운드를 지불하고, 예술 문화행사를 가는 데 필요한 택시이용을 위한 보조금을 받았으며 택시요금은 원래 가격의 1/3로 할인
- ❍ 회원들은 예술과 문화행사 외에도, 자신들끼리 만나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짐
- ❍ 홍보방법은 포스터 부착(노인이 자주 가는곳, 주간보호소,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포스터), 노인단체 방문이었으며,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노인들의 입소문이 큰 역할을 담당

□ 예술영화와 은퇴자(Cultural cinema and retired people)

- ❍ 비영리법인인 타이네사이드시네마는 영화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며, 주로 일반인에게 외국영화, 다큐멘터리영화, 영화제출품작 등을 소개

❍ 타이네사이드씨네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은 전체 관객의 3%~5%에 불과한 노인의 영화 관람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음

❍ 초기에 타이네사이드씨네마는 매주 금요일 아침에 노인들을 위한 영화상영을 실시하였으나, 직원부족과 재정사정으로 성공하지 못함

❍ 실패 이후, 타이네사이드씨네마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노인 관객층을 육성하고 있는 로양극장과 노인 문화복지 증진단체와 협력하기 시작

❍ 먼저 시작한 일은 선호하는 영화프로그램과 상영시간에 대한 조사

❍ 타이네사이드씨네마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예술영화와 은퇴자(Cultural cinema and retied peopl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ilverscreen 이라는 회원제 모임을 만듦

❍ Silverscreen 은 매월 격주로 월요일에 클래식 영화와 현대영화를 상영하였는데, 상영 전에 간단한 토론을 진행

❍ 2002년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1,760명의 관객이 Silverscreen 모임에서 상여한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매회 약 35명~40명의 노인이 관람

❍ Silverscreen 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
  - 회원제 운영 : 비회원에게는 영화상영을 하지 않으며, 회원들이 소모임을 만들도록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노인관련 단체와의 성공적인 협력체계 구축
  - 철저한 사전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반영
  - 다양한 홍보방식의 도입 : 우편발송, 웹사이트와 안내책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3) 노인 체육활동 증진 프로그램

❍ 영국 보건부에서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 건강한 생활유치를 위한 프로젝트로 전국의 10개 지역을 선정, ‘지역사회 체육활동 증진 시범사

례'(LEAP:Local Exccrcisc Action Pilots)를 계획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노팅험 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성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목표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50세 이상 인구를 5% 증가시키고, 특히 빈민지역에서 거의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내는 50세 이상 인구를 10% 줄이는 것임

❍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부문별 계획을 수립

- 철저한 사전조사 : 50세 이상 성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조사하고, 운동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빈민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운동 태도와 체육활동 장애요인을 조사
- 대외홍보 : 지역사회 대중매체의 도움으로 프로젝트의 내용과 효과를 적극 알려서 높임
-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노인의 참여를 유도 : 노인관련 서비스 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짐
-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
- 전문지도자 양성으로 노인 체육활동 지도자와 운영자를 50여명 양성

(4) 유니레버 사의 카탈리스트(catalyst) 프로그램

□ 조직 및 운영

❍ 카탈리스트 부서는 1,600명 작원들이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을 위해 직원 1명당 투자되는 예산은 연간 1,500파운드(약 3백만원)로 총 예산은 240만 파운드(약 50억원)임

□ 카탈리스트 프로그램 활동 내용

❍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Communication Skill)

- 연극배우와 극작가를 초청하여 직원들이 참여하는 상황극(Role Play) 운영, 시인, 작가를 초청하여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워크숍 개

최, 영화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영화형태로 제작하여 상영

❍ 비주얼 능력 향상(Visual Skill) : 화가를 초빙하여 Frame-work, 디자인, 컬러 감각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

❍ 발표력 향상(Presentation Skill)

- 직원들의 발표력 향상을 위해 연극배우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은 발표내용 구성, 기본적인 발성법, 화법 등이 기술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법을 교육받고 있음

❍ 의사소통 개선(Braver Conversation Skill)

- 대화 전문가를 초청하는 워크숍과 상담을 통해 동료직원 간, 상·하급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며, 협상 전문 경찰관, 심리치료사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훈련
- 특히 본인의 대화내용을 운전 중이나 귀가 후에 들을 수 있도록 CD로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사무실에 포스터를 만들어 곳곳에 부착하는 등의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잠재성 개발(Unleashed Skill)

- 개개인의 잠재성 개발 프로그램은 12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과가 끝난 후 10명의 예술가와 40명의 직원이 아이디어개발, 상호 리더십 기술 등을 익히기 위해 훈련하고 있음

(5) 존 루이스 백화점의 문화예술활용 사례

❍ 영국 상공부가 예술 활용 효과를 확인한 후, 존 루이스 피티보로우 매장의 고위 경영진은 대인기술과 자신감 함양의 방법으로 예술 활용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

- ❍ 씨어터액티브(TheatreActive)라는 극단에 요청하여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고객 서비스를 새로 고안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직원들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연극을 제작하여 공연해줄 것을 요청
- ❍ 직원은 매장 현장에서 2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극단 사람들과 반나절을 함께 보내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극배우들은 매장 직원들의 역할을 맡으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이용하여 대본을 작성하는 등 고객 서비스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업과 극단이 상호 협력
- ❍ 백화점 직원들은 역할극 관람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이를 고객서비스 개선에 활용토록 한다.

7. 스웨덴

- ❍ 스웨덴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음
- ❍ 문화영역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차별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정책적 관심을 집중
- ❍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은 없으며 노인정책은 복지영역에서 집행되고 있음
- ❍ 스웨덴 정부에서는 노인정책의 목표를 “노인이 양질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
- ❍ 복지영역에서 집중된 스웨덴의 노인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노인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
- ❍ 스웨덴 노인복지를 규정하는 두 가지 법률인 <사회서비스 법>(The Social Service Act)과 <건강 및 의료서비스법>(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s)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사회서비스 법>은 지방정부(Municipalities)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규정

- 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는 가정에서의 도움(Home Help Service), 주간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및 기타 필요한 서비스, 의료 및 양로 서비스 등을 포괄
- 한편, <건강 및 의료서비스 법>은 지방정부가 보건의료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책임지도록 규정
- 법에 의해 지방정부는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에게 재활 및 기술적 도움의 제공,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인원배치 등을 책임져야 함

❍ 스웨덴은 노인정책이 복지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정책에서는 특별히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음

❍ 결국, 노인 문화복지는 성인교육 또는 일반적인 문화활동 지원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편임

❍ 문화활동 지원정책은 주로 문화모임(Cutural association)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스웨덴 인구의 약 90%가 다양한 소모임에 가입해 있으며, 이 가운데 20% 정도가 문화관련 소모임에 가입

❍ 문화관련 소모임은 학습서클(study circle), 공연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문화그룹(cultual group), 그리고 강연·전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구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이들 모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노인은 이 같은 모임을 조직하고 가입함으로써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제2절 국내사례

1. 노인체험 시설

(1)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 시설개요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지식경제부와 성남시의 지원 아래, 고령친화제품을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설립
- ❍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고령친화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정보거점, 전시체험, 생애체험, 교육훈련, 기업지원, 보급 확산, 지역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
- ❍ 성남에 위치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지상1층, 지하 1층을 임대하여 2008년 11월에 1차 개관하여 운영 중이고, 2011년 하반기에 분당 야탑동 전용건물의 신축을 통해 개관
- ❍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고령자의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불편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고령자와 예비고령자간의 이해와 세대통합의 장을 마련

□ 프로그램 내용

- ❍ 요양보호사 교육원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발맞춰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종사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
- ❍ 전시체험관

-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친화 산업의 인식을 확산하고 고령자와 예비고령자 및 전문종사자들이 고령친화제품을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음
- 시장대표성, 제품 다양성, 기술 차별성을 갖춘 다양한 전시제품
- 제품기능별, 공간구성별, 테마구성별 수요자 맞춤형 전시체험
- 고령자의 재택케어 및 일상생활을 배려한 테크노하우스 체험
- 전시+체험+정보 를 통한 효과적인 전시체험

❍ 생애체험관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체험
- 고령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체험
-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직접 체험 및 정보제공
- 내부전시 벽면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 비교체험을 통한 체험효과의 극대화

❍ 치매프로그램

- 치매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상태를 5~7분의 음성과 자막, 영상으로 구성하여 고령자의 시선과 이동경로 등의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음
- 프로그램소개 →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교육 → 3D 영상체험 → 체험 소감 등으로 진행

2. 노인문화마을

(1) 전북 진안 학선리 마을

□ 시설개요

❍ 행복한 노인학교는 봉곡교회 담임 목사가 '내일이 두렵다'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위해 여름 겨울 농한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

□ 프로그램 내용

❍ 폐교를 활용한 마을 박물관(어르신들의 삶을 보존)

❍ 폐교를 활용한 행복한 노인학교를 운영

– 여름과 겨울에 한글반, 컴퓨터반, 도예반, 이야기반, 연극반, 짚풀공예반 운영

❍ '왜 나를 심을 데가 없어 여기다 심어 놨나'

– 할머니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

(2) 전북 원연장 꽃잔디 마을

□ 시설개요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도시민들의 휴식 같은 마을 원연장마을은 매년 꽃잔디 축제를 비롯하여 도농교류의 확장과 실현을 위해 실속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민사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는 곳임

□ 프로그램 내용

❍ 참살기좋은마을 전국대회 입상

❍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탑제 재현을 통한 마을기업

❍ 귀농인의 집(귀농하기 전에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3. 노인일자리사업

(1) 전통연보존회

□ 시설개요

- ❍ 경주문화원 부설 경주전통연보존회는 문화원의 2007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서라벌 실버마을 연 할아버지”의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잊혀져가는 전통 연을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에게 보급, 홍보함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조직
- ❍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노인일자리사업[교육형]-민속연체험사업단으로 활동

□ 프로그램 내용

- ❍ 2007년도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시가지 행사
- ❍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 ❍ 이론학습과 실습을 통한 교육 자료집 제작
- ❍ 초,중등 24개교 1,540명의 학생들을 지도

4. 문화관련사회적기업

(1) 예봉국악단-웃다리문화촌, 평택농악

□ 단체연혁

- ❍ 1993년 윤태길 단장 개인이 운영하는 평범한 국악단으로 설립되어 현재 국악전문인 양성과 국악의 연구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힘쓰고 있는 예봉국악단은 2004년 3월 10일 창단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2006년 제13회 전국예술대회 공연, 한국민속 예술제 공연을 하였음

❍ 2008년 예봉국악단 전통문화예술정기공연을 하였고, 같은 해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서 2009년 4월 1일에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

□ 주요활동

❍ 50세 이상의 국악인들을 고용하여 이들과 함께 경기민요와 창을 교육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국악공연을 펼침으로써 우리소리 알리기에 주력

❍ 지역 내 교도소와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등을 방문해 무료 국악공연 봉사를 전개,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 주요 프로그램

❍ 국악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음악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전통음악 생활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이 프로그램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국악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민요, 장구, 무용에 한해 단체, 개인 지도반을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선비문화수련원-효체험관

□ 단체연혁

❍ 자연과학박물관에서 시작한 사업을 2001년 12월 3일 문화관광부 승인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순흥역사문화 체험장으로 변경, 2002~2008년까지 총 4차에 걸친 시설공사를 통해 2010년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설립

❍ 2010년 12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2011년 1월부로 (사)한국선비문화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

□ 주요활동

❍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인성예절캠프와 선비문화체험 등을 제공

❍ 체험 프로그램, 수학여행 프로그램, 기차타고 성균관유생체험, 선비아카데미, 전통 음식 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 주요 프로그램

❍ 창의, 인성교육이라는 가치 아래 예절, 서예, 무예 교육으로 구성된 선비문화교육과 전통혼례, 전통놀이, 문화유적답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문화교육을 실시

❍ 체험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일반인, 공무원,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1박2일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

❍ 기차타고 성균관유생체험 은 2박3일·3박4일·4박5일 코스로 선비 육례에 입각한 체험을 위주로 전통문화, 전통놀이, 유적답사, 전통음식체험 일정으로 구성

❍ 전통적 충, 효와 인·의·예·지·신의 정신을 함양하고 봉사와 청렴의 선비정신을 이어가는데 목적을 두는 선비아카데미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복입고 배례법, 자연염색, 전통무예 택견,서예, 다도 등의 선비정신과 전통문화를 체험 학습하고 호연지기 함양 산행, 문화유적지 탐방, 지방특산 별미 체험 구성되어 제공

(3) 이야기꾼의 책 공연-노인일자리

□ 단체연혁

❍ 이야기꾼의 책 공연 팀은 동화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공연으로 소외층 어

린이 등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길거리 공연인 이야기 배달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극단으로 독서를 종합적인 체험으로 확장하는 서비스를 제공

- 2009년 1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에서 실시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심있는 청소년과 예술가가 모여 팀을 이루어 시작
-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이후 2010년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16명의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음
- 사회적문제의 해법으로 책 읽는 사회라는 과제 해소와 문화 불균등지역,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 해소라는 가치를 내걸고 예술을 활용한 독서함양 교육과 독서자본 형성, 찾아가는 예술과 예술교육을 하고 있음

□ 주요활동

- 복지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동화 이야기 공연과 연기지도, 길거리 공연 등의 활동을 하며 수익을 창출
- 도서관이나 학교, 유치원 등을 찾아 연극과 음악, 놀이 등 다양한 요소를 책읽기와 결합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책 공연 팀의 경우, 국제도서전에서 공연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주 타깃인 도서관이나 학교, 유치원 등의 자체 예산이 적어 공연 수익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다양한 체험놀이와 공연관람으로 이루어지는 책 공연 제작 사업을 기본으로 이야기꾼 양성 워크숍, 제작된 책 공연과 워크숍을 도서관, 수련관, 학교에 제공하여 확장하는 시도를 하며 어린아이부터 노인층까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참여 가능한 스페셜 책 공연'팀을 기획하여 공연을 제작
-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총 200회가 넘는 공연과 300회가 넘는 교육을 진행 해오고 있으며, 3년 안에 자립을 목표로 책 읽기 공연을 시

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

❍ 인건비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2년의 자립 준비기간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인건비 외 사업개발비가 절실히 필요

□ 주요 프로그램

❍ 찾아가는 책 공연 , 찾아가는 교육·워크숍 , 솔루션 아트의 일환으로 환경문제해소를 위해 예술로 접근하는 스토리텔링, 숲 예술 및 숲 프로그램, 환경예술 및 환경 프로그램, 미혼모와 함께 하는 이야기태교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

❍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자원 스토리텔링 및 로컬푸드 등 지역상품 스토리텔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등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가는 노력을 실행

(4)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효체험관

□ 단체연혁

❍ 2008년 1월 자연휴양림 전통문화수련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전통문화체험팀 교육, 국악공연팀 등을 운영하다가 12월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으로 상호, 주소, 대표자를 변경

❍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전라북도 및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과 각종 행사 공연을 진행

❍ 2010년 7월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전라북도로 부터 전문예술단체 지정 및 노동부 인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주 사업영역으로는 지역사회개발, 전통문화체험, 국악공연체험,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구분

❍ 지역사회개발은 판소리, 도자기, 식칼, 목기 등 남원의 생활문화예술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민속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

❍ 청소년, 국내거주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전통문화체험을 통하여 전통놀이문화, 한국전통음식문화, 한국 전통예절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전통문화체험을 운영

❍ 풍부한 문화예술자산을 상품으로 재생산하여 마당극 춘향전, 좌도와 우도, 삼동굿놀이, 호남좌도 농악 등 지역문화를 토대로 한 공연을 펼치고 있음

❍ 전통예술 인턴제 사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전문예술인과 일반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5.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경로당 운영사례

(1) 작은도서관 운영

□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주민들의 독서문화 장려

❍ 천안시 쌍용3동에 소재한 용암마을아파트경로당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며 주민들의 독서문화 장려에 힘쓰는 경로당 운영의 모범 사례임

❍ 2009년, 용암마을아파트 단지 내 103동 103호에 '용암마을 작은도서관'을 개관

- 개관 당시 총 보유 서적이 150여권에 불과해 이름뿐인 마을도서관을 용암마을경로당 회원들이 현재 6000여권의 장서와 24개 열람석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

□ 경로당 회원들의 손길로 운영되는 마을도서관

❍ 10여명의 경로당 회원은 2명씩 조를 이뤄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

적 정리,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 경로당 회원들은 어느 곳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거의 다 꿰고 있어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서적 안내 가능
- 3일의 대출기간 내 서적을 반납하지 않으면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책을 받아오기도 하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자체 회원카드도 발급

○ 경로당 회원들은 담당 근무 날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을 찾아 서적을 정리하거나 안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경로당 회원들이 마을도서관을 자주 찾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학생들의 책 읽는 모습이 예쁜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주로 초·중고생이 많이 방문하는데 경로당 회원들이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 나눠주기도 함

<그림 3-1> 용암마을경로당 회원들이 독서지도를 하는 모습



□ 마을도서관 운영을 위한 리더의 의지와 리더십

○ 용암마을경로당은 '용암마을 작은도서관' 개관 전부터 경로당 내 서적을 비치해 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왔음
- 이는 주민들이 독서를 통해 문화적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싶었던 중학교 교장 출신인 주진주 회장의 의지로 인한 것이었음
- 하지만 적은 장서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고, 그 대안으로 마을도서관을 선택했던 것임

○ 개관 당시 마을도서관은 이름만 도서관일 뿐 찾는 이 하나 없는 애물단지였고, 이에 아파트 대표회에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이곳을 노인회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제안하자 도서관 관리를 승낙
- 경로당 서적과 도서관 서적이 합쳐지자 300권 정도 보유하게 되었고, 경로당 회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서적 관리에 나섬
- 곧 도서관이 제법 체계가 잡혀져 가자 점차 주민들의 발걸음도 잦아졌고, 2009년 5월 주민센터의 후원으로 정식 개관식을 갖기도 함

□ 모범 경로당 선정과 지역사회의 기부

○ 경로당 회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2009년 말 천안시지회로부터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돼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을 받음
- 상금 200만원 전액을 모두 서적 250권 구입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도서관에 책장이 하나 둘 늘어감

○ 경로당 회원들의 노력을 옆에서 지켜봐 온 마을 부녀회는 2010년 도서 300권을 전달했고, 김구재단 이사장은 신간 도서 860권을 구입해 기탁
- 시청으로부터 받은 서적 구입비 500만원으로 750권을 구매해 책장을 채움
- 주민들의 개인 후원도 이어져 어느새 도서관은 6000여권의 서적을 보유

□ 경로당 운영의 모범사례로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성장

○ 도서관 규모가 커지고 입소문이 나면서 외부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음
  – 경기 부천시 노인복지 실무자와 시의원 등은 경로당을 방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배워감
  – 금산군지회 경로당회장단은 선진지 견학 장소를 '용암마을 작은도서관'으로 선정하기도 함

○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는 관내 각 경로당회장단에게 수시로 용암마을경로당 방문을 권유

□ 지역주민 만남의 장으로 변모

○ 경로당이 운영하는 마을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를 떠나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고 토론을 벌이는 곳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역주민들이 체감

○ 회원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움직임은 도서관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음
  – 쌍용3동 분회장을 겸하고 있는 주 회장을 중심으로 타 경로당 회원들과 매달 2회 관내 소공원 환경정화를 실시
  – 연말연시에는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을 벌이고 있고, 수시로 홀몸어르신을 초청해 윷놀이, 노래교실 등을 열고 있음

○ 경로당의 한 회원은 도서관 관리를 비롯해 여러 봉사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밝히기도 함

○ 용암마을경로당은 애물단지였던 도서관이 노인들의 노력 덕분에 문화생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모범 사례임

(2) 공방 운영

□ 공방 운영으로 노인들에게 일에 대한 보람 함양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마을의 중심에 자리잡은 장동경로당은 2008년부터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
- 경로당 회원들이 직접 나무를 깎아 제작한 공예품들로는 실생활에 유용한 구둣주걱, 지팡이, 안마기 등 다양한 작품이 있음

○ 아무런 기술도 없던 회원들이 약 1년간 교육을 받아 어엿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주문을 받아 이를 인사동에 판매할 수 있는 수준에 이름
- 공예품 가격은 1~2만원 수준으로 개인당 한 달 수입이 평균 10~20만원

○ 공방에서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회원들은 하루하루 공예실력이 느는 것을 몸소 느끼며 일의 재미를 느끼고 수입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작품이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음

<그림 3-2> 장동경로당의 공방 작업장 현장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삶의 의미 고양

○ 주말에 산림욕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마을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이에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음
  – ‘계족산 황톳길 맨발걷기’로 유명한 장동산림욕장은 2008년 여행전문 기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선’으로 선정한 곳임

○ 장동경로당은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노인회가 지원하는 ‘우수노인자원봉사클럽’으로 선정된 바 있음
  – 노인자원봉사클럽은 노인 스스로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소모임을 말함
  – 장동경로당처럼 ‘우수노인자원봉사클럽’으로 선정된 경로당은 전국 6만 여 경로당 중 200여 개에 불과함

○ 장동경로당은 환경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직접 돕기도 하고 새로운 봉사활동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베푸는 노인의 위상 제고에 모범적 역할

○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산림욕장 청소 봉사활동으로 관광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

○ 경로당 내 공방에서 만들어낸 작품들은 외국인들이 앞서 찾을 만큼 인기가 많음

○ 또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절 및 인성교육은 물론 텃밭을 가꿔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른바 ‘받는’ 노인이 아니라 ‘베푸는’ 노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3) 교육프로그램 운영

□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서 경로당의 가능성

○ 대한노인회 대구 동구지회 소속한 신천청아람아파트경로당은 2011년 문을 연 뒤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한자, 전통예절 및 놀이, 독서 등 다양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음
- 다른 경로당들도 종종 주민 대상 강의를 실시하는 곳이 있지만, 이 경로당이 특별한 이유는 모든 강의를 경로당 회원들이 담당한다는 점 때문임

○ 2014년 현재 강사로 활동 중인 회원들은 학교장, 교사, 선교사 출신들임
- 이들은 각자 분야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실시, 경로당을 지식 함양의 공간으로 탈바꿈

□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생활영어 강의를 담당하는 한 노인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선교사로 생활했던 경험을 살려 주민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생활영어를 교육하고 있음
- 매일 아침·저녁마다 부모님에게 강의 시간에 배운 영어로 문안인사를 올리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 한 노인은 전통예절강의 시간에 인사법, 절 예절, 올바른 언어 사용법 등을 교육하며 부모님과 마을 어르신들께 꼭 예의를 다해 인사할 것을 강조함
- 강의가 2년째 접어들자 아이들이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을 보고 두 손 모아 인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보람 덕에 3년째 강의를 이어오고 있음

○ 중학교 사회교사 출신인 회원에 의해 개설된 한자교실 시간에도 '사자소

학’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자 공부를 하며 할아버지와 마음을 소통할 수 있었고 예의범절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된 개인적인 경험이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육 진행

○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전통놀이교실도 개설되었고,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음

– 가마놀이, 깨금질 싸움(닭싸움), 공기놀이 등 40여가지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선조들의 전통문화를 이해

<그림 3-3> 신천청아람경로당 전통예절교실의 교육 모습



□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 청아람경로당 강사진은 주민들의 문화생활도 책임지고 있음

– 매달 1회 독서교실을 열어, 주민들에게 독서 문화를 장려

- 이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로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책을 구입해 주기도 하는데 2013년에는 60여 종류의 책을 전달한 바 있음
- 부녀회와 연계해 매주 2회 하모니카 교실을 열고 있으며, 건강 증진을 위한 요가교실도 운영 중임
- 금요일에는 국민건강공단 강사를 초빙, 더욱 세부적인 요가 동작을 교육 받도록 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력을 펼친 청아람경로당은 개설된 지 3년 만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

□ 교육을 통한 재능기부 아이디어의 발상과 실현

○ 신천청아람경로당의 우병철 회장은 2011년 경로당회장직을 맡은 뒤 우리 노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교육을 통한 재능기부를 떠올림

- 중학교 교장 출신인 우 회장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능기부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육이라고 판단, 곧바로 지역 내 우수한 노인 강사진 확보 작업에 착수
-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전통예절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김창주 어르신에게 자신의 취지를 설명했고, 김 어르신은 이를 동의
- 그 뒤에도 우 회장은 강사 발굴에 총력을 기했으며, 그 결과 우수한 인재를 포섭할 수 있었음

○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을 위한 노인봉사활동 전개

- 회원들과 아파트 단지 내를 비롯해 학교, 도로, 기차역 주변 오물 제거 봉사를 전대
- 또한 청소년사랑봉사단을 조직, 저녁 8~11시마다 단지 내를 순찰하며 주민들의 치안관리에도 힘씀

□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상의 표본이 발현되는 장소

○ 신천청아람경로당은 2012년 대구시 경로당운영 심사결과 최우수경로당에 선정

○ 2013년에는 김대현 강사가 생활영어 교실 학생들과 함께 CMB대구방송 TV 프로그램 '열전 동네방네'에 단지 대표로 출전해 팝송 'You Are My Sunshine' 합창공연을 펼침

○ 2014년에는 경로당 교육 프로그램이 동구청에서 주관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활동지원금 800만원을 받기도 함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문화 확산

□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상 구현

○ 부산 수영구지회에 소속한 삼익비치경로당은 2년 전만 해도 노인들의 단순한 '쉼터'에 불과했지만 2014년 현재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 탈바꿈함

- 경로당 회원들이 광안리지킴이, 9988자원봉사클럽, 행복도우미, 관광도우미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노인회가 표방하고 있는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상' 구현을 위해 노력
-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자 지역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입해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 하는 중임

○ 삼익비치경로당은 바로 앞에 광안리해수욕장을 두고 있어 여름 휴가철만 되면 해수욕장 백사장이 쓰레기로 가득

- '광안리지킴이'는 관광객이 떠나간 주말, 1km가 넘는 백사장을 돌며 오물제거 봉사활동을 전개

□ 광안리지킴이의 발족과 활동의 성과

○ 광안리지킴이는 대한노인회가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를 개설하기 3년 전인 2008년 발족

– 경로당의 대표적인 봉사클럽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노인회 우수 자원봉사클럽으로 선정

○ 한여름 땡볕에 힘든 작업이지만 20여명의 클럽 회원들은 지역 관광명소를 우리 손으로 정화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원봉화활동을 전개

<그림 3-4> 삼익비치경로당 회원들의 환경정화활동 모습



□ 9988자원봉사클럽과 행복도우미의 조직 및 활동

○ 삼익비치경로당 내 구성된 '9988자원봉사클럽' 회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그곳으로 찾아가 방문, 창틀, 방충망, 싱크대, 선풍기, TV, 에어컨 등을 수리

- 회원들의 이·미용, 레크레이션과 더불어 기름통·물탱크 등의 폐품수거 및 처리 등도 책임지고 있다. 있음

○ 오랜 사용으로 인해 헐거워진 전자제품의 나사를 조이거나, 집안에 전선을 연결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 못할 경우 구청에 민원신청까지 해줌

- 환자가 발생하거나 대형 전자제품 등을 옮겨야 할 일이 생기면 트럭을 보유한 회원이 그곳으로 출동해 일을 도움

○ 김 회원은 현재 '행복도우미'로 활동하며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께 식사대접을 위해 '행복도우미'로 조직

□ 외부 지역주민에게 경로당을 개방하여 쉼터이자 관광정보 제공처 제공

○ 매년 10월 경 열리는 '광안대교 불꽃축제'를 구경 오는 전국 대한노인회 회원들에게 경로당을 개방

- 광안대교가 한 눈에 보이는 경로당 앞마당과 옥상 등에 의자를 놓고, 다과·음료를 제공하며 회원들이 편하게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함

○ 피서철에는 '하계실버웰빙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경로당을 회원들의 쉼터이자 관광정보 제공처로 사용

- 2013년에는 구청에서 이곳을 모범 운영 경로당으로 추천해 중국 상해 소속 대학생 수학여행단 34명이 방문하기도 함

○ 노인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 젊은 세대에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의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교육과 고용 등장

❍ 기존의 노인복지 체계 곧 소득보장, 의료, 주거 등의 복지체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인복지 영역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

❍ 노인복지가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에 시작된 우리로서는 노인 복지정책이 해야 할 역할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

❍ 곧, 기존의 노인복지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인복지영역의 개발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노인문화복지의 실질적인 운영기관은 지역단위

❍ 노인문화복지의 전체적인 방향과 계획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소규모 지역임

❍ 한국의 사회복지는 다른 행정영역보다 비교적 잘 갖추어져서 정책이 지역단위에서 실행되고 있음

❍ 노인 문화복지 영역을 지역별로 특화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자발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사회단체의 조성과 활동이 활발

❍ 노인 스스로 문화를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자원을 요구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소양을 지닌 노인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자신의 문화적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의식을 갖고 이를 수행해야 함

❍ 단순히 자원봉사나 단체형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으

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경제적 여건과 연령 등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 진행 필요

❍ 노인복지회관은 상대적으로 중산층, 저연령층,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이, 경로당은 초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

❍ 이 같은 이용자 특성은 요구사항에서도 차이를 보여,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는 공간확대를 가장 원하는 반면, 경로당 회원은 점심식사와 간식을 위한 경제지원을 원하고 있음

❍ 사회복지관 이용자는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의 중간 정도에 위치

❍ 이처럼 이용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상황에서는 기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

□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

❍ 경로당이 단순 모임공간이 아니라 문화복지의 실현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 사업으로 인식

❍ 먼저 대상 경로당 수를 늘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거점형 경로당 운영방안

제1절 경로당 기능 및 현황
제2절 거점형 경로당 운영방안
제3절 거점형 경로당 활성화방안
제4절 광주형 지역복지 지역공동체(안)

제4장 거점형 경로당 운영방안

제1절 경로당 기능 및 현황

1. 경로당 기능

□ 경로당의 의의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상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오락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의 교환 및 기타 여가와 휴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

- 즉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여가욕구, 오락욕구, 교육욕구, 소득욕구, 보건의료욕구, 정신건강욕구 등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장시간 동안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
- 친구들과의 만남, TV시청, 취미생활, 친목도모, 집단 활동, 환경미화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은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로 간주

❍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경로당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노인들의 오락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

-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언제든지 만나 장기, 바둑, 화투 등과 같은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오락 기구를 활용한 오락 활동, 실내게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노인들의 오락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활용

- 경로당은 또한 노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
-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교양교육, 미술활동, 음악활동, 문학 활동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각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노인들의 소득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종 건강 프로그램과 체육활동을 통하여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

- 그와 더불어 경로당은 상담, 환경보호활동, 문화재보존활동, 종교 활동 등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정신건강욕구를 충족

❍ 이러한 경로당은 고독감, 소외감, 박탈감, 압박감, 역할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친목도모, 여가활동, 휴식, 상담,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하여 그들이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감을 갖고 건전하고 보람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

-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이 의존적인 태도에서 독립적인 태도로, 소비적인 활동에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사회복지의 수혜자에서 제공자로, 고독하고 소외된 삶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즐거운 삶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2. 경로당 현황

(1) 전반적인 경로당 운영 현황

❍ 경로당 운영 현황

- 경로당의 규모는 노인복지법 상 20㎡(약 6.5평) 이상으로 규정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면적을 보면 20-30평 미만이 40.6%로 가장 많으며, 30-40평 미만이 23.3%, 10-20평 미만이 16.5%, 40평 이상이 15.8%, 10평 미만이 3.8%의 순
- 경로당의 규모가 대체로 협소한 편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도농혼합지역과 농어촌지역이 20-40평 미만이 많고, 40평 이상은 도시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1> 지역별 경로당의 규모

(단위 : %)

구 분	도 시	도농혼합	농어촌	전체
10평 미만	4.7	3.8	3.7	3.8
10~20평 미만	20.6	17.2	14.7	16.5
20~30평 미만	27.0	39.6	45.5	40.6
30~40평 미만	20.6	23.5	23.8	23.3
40평 이상	27.1	15.9	12.2	15.8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31.6평	28.1평	27.2평	28.1평

❍ 경로당의 시설과 설비 및 보유하고 있는 비품을 살펴보면 난방시설(97.6%)과 주방시설(92.0%)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세면시설(62.6%)의 설치비율이 낮고 냉방시설(15.0%)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설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

- 또한 텔레비전(94.7%), 냉장고(84.3%) 및 전화(79.4%)는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노래방기기(22.5%), 컴퓨터(5.6%) 등은 보유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난방시설, 주방시설 및 세면시설의 설치비율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없으나, 냉방시설은 도시지역이 도농혼합지역과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설치비율이 훨씬 높은 실정

- 한편 텔레비전, 전화 및 노래방기기의 보유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컴퓨터는 도시지역이 도농혼합지역과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보유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 지역별 경로당의 시설·설비 및 비품 현황

(단위 : %)

구 분	도 시	도농혼합	농어촌	전체
난방시설	97.2	97.5	97.8	97.6
냉방시설	30.5	16.7	8.9	15.0
주방시설	93.9	91.9	91.5	92.0
세면시설	78.5	64.1	56.4	62.6
냉 장 고	95.2	84.1	81.1	84.3
텔레비전	97.4	94.4	94.1	94.7
노래방기기	22.4	19.2	25.6	22.5
전 화	94.4	78.5	75.6	79.4
컴 퓨 터	11.7	4.4	4.7	5.6
기 타	12.2	10.0	6.0	9.0

❍ 경로당의 프로그램별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들이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화투·바둑·장기가 98.4%로서 가장 많고, 야외나들이 91.9%, 점심식사 제공 83.9%, 보건소 순회 진료 62.9%, 자원봉사활동 50.0%, 환경미화 43.5%, 방역서비스 35.5%의 순으로 실시

– 그 밖에도 한방진료(21.0%), 이·미용서비스(21.0%), 공동작업장(16.1%), 장구(16.1%), 노래교실(14.5%), 게이트볼(14.5%), 건강체조(14.5%), 치매예방 체조(14.5%) 등을 실시

– 반면, 서예, 스포츠댄스, 한글교실, 교양강좌, 미술활동, 생신잔치 등은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경로당 프로그램별 활동비율

(단위 : %)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화투·바둑·장기 등	98.4	방문 진료(의료기관 등)	19.4
서예	4.8	한방진료	21.0
장구	16.1	치매예방체조(교육 등)	14.5
노래교실(노래·가요·민요교실)	14.5	발관리서비스	12.9
춤(무용) 스포츠 댄스 등	1.6	이·미용 서비스	21.0
게이트볼	14.5	세탁서비스	3.2
건강체조	14.5	방역서비스	35.5
한글·산수·한자교실	1.6	환경미화	43.5
컴퓨터 교실	-	신문토론	12.9
교양강좌	9.7	미술활동	4.8
자원봉사활동	50.0	생신잔치	9.7
공동작업장(부업활동 등)	16.1	야외나들이	91.9
점심식사 제공(공동 취사)	83.9	재취업교육	-
보건소 순회 진료	62.9		

❍ 경로당 이용회원수는 평균 40명 정도이며, 지역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전체의 과반수 정도가 이용회원 20-4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이용 노인의 연령은 70-79세가 가장 많으며, 69세 이하, 80-89세, 90세 이상의 순

– 경로당 운영 책임자의 특성을 보면 남자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70-74세가 과반수를 차지

–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으며, 재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현황을 보면 동·읍·면사무소와의 연계가 91.9%로 가장 많고, 보건소 71.0%, 부녀회 69.4%, 시·군·구청 54.8%, 학교기관 43.5%, 종교기관 41.9%, 병의원 24.2%의 순

–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2) 광주시 경로당 운영 현황

❍ 광주시 경로당은 1,272개소 (동구 107, 서구 224, 남구 214, 북구 369, 광산구 358)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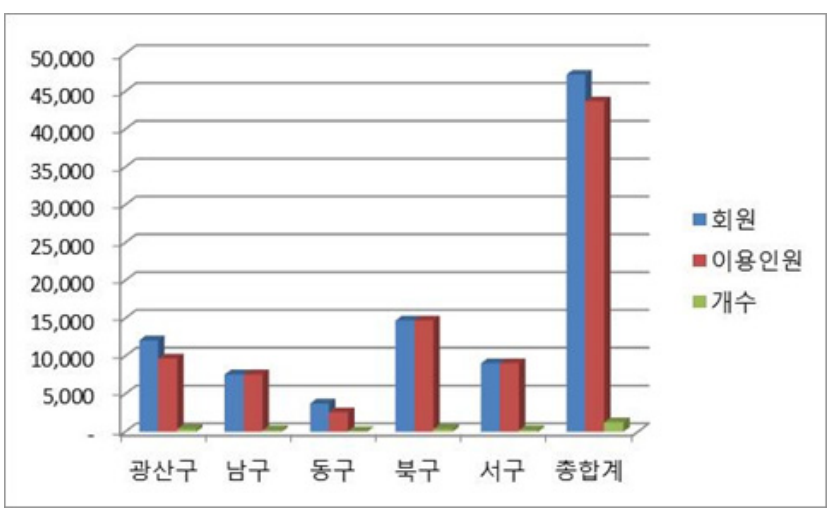
– 광주시 경로당은 총 1,272개가 이용 중이며, 총 47,243명 회원수 대비 이용인원은 2.5%인 43,701명임

– 이중 남구, 북구, 서구는 포화 상태(100%), 광산구와 동구는 각각 80.3%, 69.1%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4-4> 광주시 경로당 현황

자치구	회원	이용인원	개수
광산구	12,092	9,710	358
남구	7,599	7,599	214
동구	3,751	2,591	107
북구	14,732	14,732	369
서구	9,069	9,069	224
총합계	47,243	43,701	1,272

<그림 4-1> 광주시 경로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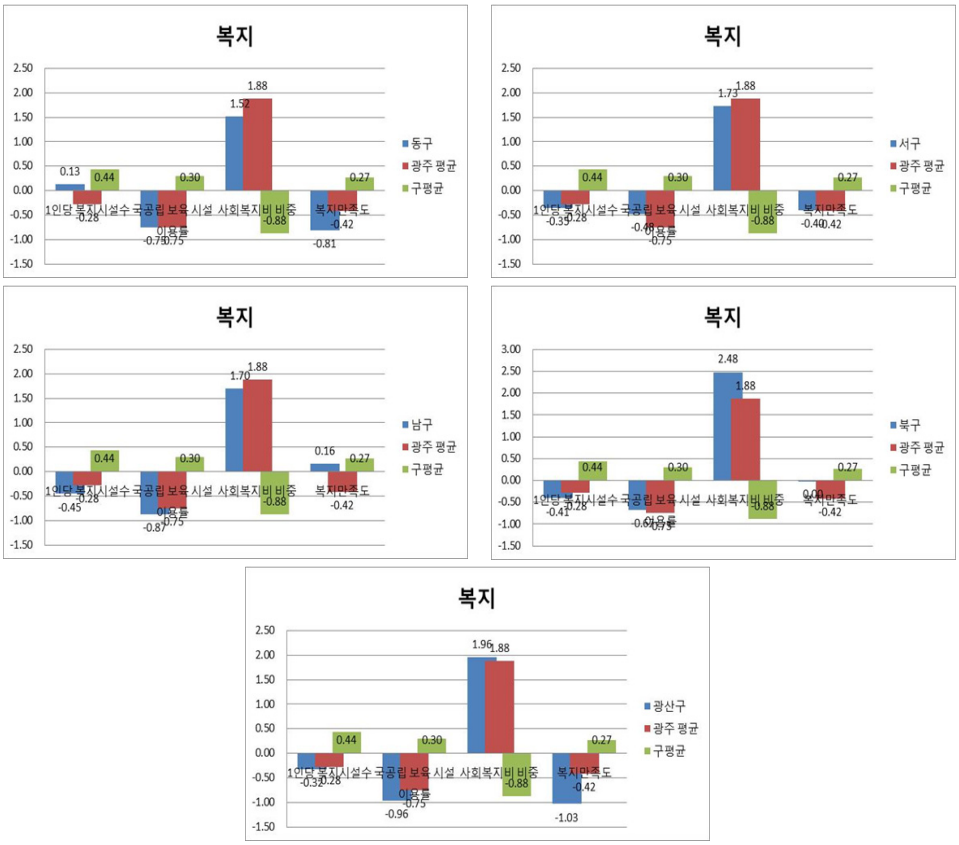
❍ 광주시의 복지지설에 대한 전국대비 상대적인 위상은 사회복지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복지시설수의 경우 광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사회복지비비중은 모든 구에서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 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구의 사회복지비비중은 2.48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주시 5개구의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동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2014년 8월 지역위 행복도 조사 기준)

<표 4-5> 광주시 복지시설 위상

자치구	1인당복지시설수	국공립보육시설이용율	사회복지비비중	복지만족도
광산구	0.129	-0.748	1.519	-0.808
남구	-0.353	-0.478	1.733	-0.403
동구	-0.453	-0.868	1.701	0.156
북구	-0.409	-0.672	2.482	-0.001
서구	-0.321	-0.959	1.958	-1.031

<그림 4-2> 광주시 복지 지원 정도



❍ 광산구 경로당은 총 358개로 21개 동, 평균 17개 경로당이 서로 인접해 있으며, 인접 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4km로 경로당이 분포

– 전체 이용률은 0.80%이며, 이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평동과 첨단1동의 이용률은 각각 0.97%, 0.98%로 나타남

–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는 상관없이 경로당의 최소거리는 100M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광산구 경로당의 인근 경로당이 적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이 적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을 나타냄

<표 4-6> 광산구 경로당 현황

행정동	인근경로당 (개수)	거리		인원	
		최소 (M)	최대 (M)	회원수 (명)	이용인원 (명)
도산동	16	100	1,200	492	335
동곡동	18	150	2,580	627	393
본량동	29	340	1,800	930	767
비아동	10	250	4,000	333	236
삼도동	26	300	3,000	811	596
송정1동	14	100	400	487	334
송정2동	9	200	500	341	244
수완동	29	100	600	856	714
신가동	14	150	570	393	298
신창동	16	200	1,000	517	489
신흥동	8	120	754	272	190
어룡동	30	100	1,160	1,040	601
우산동	15	100	1,400	540	447
운남동	11	100	450	384	415
월곡1동	5	500	800	205	182
월곡2동	10	198	655	397	268
임곡동	24	200	1,800	647	559
첨단1동	21	100	500	555	545
첨단2동	23	200	1,500	788	712
평동	18	500	1,600	1,043	1,021
하남동	12	150	800	434	364
소계	358	100	4,000	12,092	9,710

❍ 남구 경로당 현황은 전체 214개로 전체 이용률이 100%인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남구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경로당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또는 거점형 경로당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 광산구 경로당 현황

행정동	인근경로당 (개수)	거리		인원	
		최소 (M)	최대 (M)	회원수 (명)	이용인원 (명)
대촌동				1,582	1,582
방림1동				327	327
방림2동				283	283
백운1동				515	515
백운2동				163	163
봉선1동				339	339
봉선2동				433	433
사직동				392	392
송암동				353	353
양림동				154	154
월산4동				181	181
월산5동				238	238
월산동				440	440
주월1동				524	524
주월2동				199	199
효덕동				1,476	1,476
소계				7,599	7,599

❍ 동구 경로당은 총 107개로 13개 동에 평균 8개의 경로당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구 경로당의 이용률은 평균 69%로 경로당 이용률이 광주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로당간 인접 거리는 최소 60M에서 최대 6km로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최소거리는 짧고, 최대거리는 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구 역시 인접 경로당 및 경로당 수가 적을수록 이용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로당 통합을 위한 거점형 경로당 및 새로운 경로당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 광산구 경로당 현황

행정동	인근경로당 (개수)	거리		인원	
		최소 (M)	최대 (M)	회원수 (명)	이용인원 (명)
계림1동	9	300	500	274	146
계림2동	7	300	400	381	195
동명동	3	300	500	113	78
산수1동	6	350	600	222	170
산수2동	10	250	700	457	237
서남동	5	400	1,000	223	177
지산1동	3	300	350	63	63
지산2동	6	300	300	156	102
지원1동	8	300	600	239	123
지원2동	20	200	6,000	572	572
충장동	7	500	800	280	172
학동	6	60	500	289	230
학운동	17	200	900	482	326
소계	107	60	6,000	3,751	2,591

❍ 북구 경로당 현황은 총 369개이며, 27개동에 평균 14개의 인접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구의 경로당 이용률은 모든 행정동에서 이용률이 100%인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용인원 기준으로 최대 10배의 경로당이 행정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인근 경로당 수가 적은 행정동에서의 이용률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경로당이 포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경로당을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광산구 경로당 현황

행정동	인근경로당 (개수)	거리		인원	
		최소 (M)	최대 (M)	회원수 (명)	이용인원 (명)
건국동	40	-	-	1,522	1,522
동림동	13	-	-	490	490
두암1동	7	-	-	282	282
두암2동	13	-	-	496	496
두암3동	10	-	-	446	446
매곡동	16	-	-	627	627
문화동	8	-	-	381	381
문흥1동	13	-	-	500	500
문흥2동	12	-	-	473	473
삼각동	11	-	-	419	419
석곡동	16	-	-	676	676
신안동	17	-	-	659	659
양산동	34	-	-	1,284	1,284
오치1동	10	-	-	379	379
오치2동	13	-	-	492	492
용봉동	32	-	-	1,246	1,246
우산동	11	-	-	437	437
운암1동	12	-	-	448	448
운암2동	10	-	-	397	397
운암3동	13	-	-	529	529
일곡동	23	-	-	928	928
임동	8	-	-	318	318
중앙동	6	-	-	229	229
중흥1동	4	-	-	156	156
중흥2동	6	-	-	321	321
중흥3동	6	-	-	274	274
풍향동	5	-	-	323	323
소계	369	-	-	14,732	14,732

❍ 서구 경로당의 현황은 총 1,05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18개 행정동에 평균 12개의 경로당이 인접한 것으로 나타남

– 서구의 경로당 이용률은 100%이며, 이용인원은 총 9,069명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행정동내 경로당이 적을수록 이용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과 또는 거점 경로당 형식의 신규 경로당 입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 광산구 경로당 현황

행정동	인근경로당 (개수)	거리		인원	
		최소 (M)	최대 (M)	회원수 (명)	이용인원 (명)
광천동	7	200	419	343	343
금호1동	19	227	458	762	762
금호2동	12	156	700	555	555
농성1동	10	193	582	350	350
농성2동	4	152	318	215	215
동천동	6	161	260	290	290
상무1동	12	301	781	552	552
상무2동	19	71	827	903	903
서창동	24	50	8,000	844	844
양3동	6	52	548	233	233
양동	7	250	800	204	204
유덕동	12	300	1,000	545	545
치평동	15	219	638	645	645
풍암동	20	205	763	726	726
화정1동	12	77	305	559	559
화정2동	11	150	420	409	409
화정3동	12	163	730	395	395
화정4동	16	178	573	539	539
소계	224	50	8,000	9,069	9,069

제2절 거점형 경로당 운영방안

1. 경로당 문제점

❍ 법적 기준과 시설·설비

– 경로당의 규모는 노인복지법상 20㎡(약 6.5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기준도 설치가능 이용 노인수를 20명 이상(읍·면지역 10인

이상)으로 하고 있고, 구비해야 할 시설기준으로는 화장실, 거실 및 전기시설만이 제시

- 이러한 법적 기준의 영향으로 경로당의 규모와 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경로당은 현재 대부분이 40평 미만으로서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시설과 설비도 부족한 상태

- 경로당의 규모는 최근에 건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경로당들이 공간이 협소하여 노인들이 동시에 여가활동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며, 경로당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 곳이 많고, 전기시설, 급수시설, 난방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등은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목욕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경로당은 거의 없는 실정
-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바둑, 장기, 화투, TV, 라디오, 신문 등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많으나, 운동기구, 서예도구, 서적, 노래방기기, 비디오, 컴퓨터 등은 거의 없는 실정

❍ 프로그램의 부재

-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함
-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대개 화투, 장기, 바둑, TV시청, 라디오 청취, 야외나들이, 보건소 순회 진료, 자원봉사활동, 환경미화활동 등이 많으며, 방문 진료, 한방진료, 이・미용서비스, 공동작업장 운영, 장구, 노래교실, 게이트볼, 건강체조, 치매예방체조, 서예교실, 스포츠댄스, 한글교실, 교양강좌, 미술활동, 생신잔치, 컴퓨터 교실 등은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경로당에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경로당이 단순히 노인들이 화투, 장기, 바둑, TV시청 등과 같은 단순한 오락이나 즐기는

모임의 장소로서가 아닌 노인의 여가욕구를 포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

– 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설·설비·공간 및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물론 운영 책임자의 실천의지와 리더십의 부족, 노인들의 참여부족 등으로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표 4-11> 경로당의 분야별 프로그램(예시)

(단위 : 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교양 강좌	건강관리, 노인역할, 정부시책 등
취미 활동	원예, 서예, 시조, 바둑, 장기 등
봉사 활동	자연보호, 청소년선도, 교통정리, 농번기 일손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관리 등
건강 활동	조기체조, 등산, 체육대회 등
자체 수입조성	전통공예품 제작, 재활용품 수집, 공동 일거리개발(농어촌의 경우 유휴지 활용) 등
교육 활동	한문강좌, 전통예절 교육, 외국어 강좌 등
기 타	지역특성에 알맞은 각종 활동

❍ 경로당 운영의 영세성

– 경로당의 운영비는 정부의 보조금, 회원의 회비, 지역유지의 후원금, 회원의 찬조금, 기본재산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조금과 회원의 회비에 대부분 의존

–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

– 도시지역의 경로당이 도농혼합지역과 농어촌지역보다 운영비 보조금과 회원의 회비가 많으나, 지역유지의 후원금과 회원의 찬조금은 도농혼합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로당의 운영비는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며,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도시지역에 비하여 도농혼합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 특히 2005년부터는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결여

-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
- 반면, 많은 경로당들이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기관), 사회단체, 지역유지, 민간기업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지 않고 있으며, 경로당후원회를 결성하고 있는 곳도 적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

❍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현황을 보면 동·읍·면사무소, 보건소, 시·군·구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는 연계가 많으나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학교기관, 종교기관, 민간기업체 등과는 연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경로당을 방문하여 청소, 이미용서비스, 점심식사 제공, 물리치료, 오락 등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유무도 전체 경로당의 11.3%만이 관계를 맺고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활용비율도 낮은 편

❍ 배타성과 운영주체의 비전문화

- 경로당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갖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로당 활성화사

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이 외부에 대한 배타성을 버리고 지역사회와 연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존재
- 반면, 경로당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외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화원모집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여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한편 경로당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운영주체의 개방성과 리더십이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 책임자나 관리·운영주체가 외부에 다소 배타적인 면이 있는 것은 물론 리더십의 부족으로 과거의 경로당에 대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

2. 경로당 운영 발전방향

❍ 경로당 기능의 재정립

- 경로당은 그동안 지역사회 노인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즐기는 단순한 모임의 장소로 인식됨
- 그러나 최근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경로당이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보내는 장소보다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
- 따라서 경로당이 친목도모와 여가를 보내는 장소로서의 기능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환이 필요

❍ 이와 같은 경로당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한 기능인 사회교육, 건강증진, 노인일자리 · 사회참여 사업, 종합상담, 자원봉사, 취미교실, 급식 중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가칭) “마을복지문화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이 제기

- 이외 자조조직으로서의 경로당으로 특성화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여가시설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더욱 활성화하여 경로당의 자조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서비스 주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

❍ 경로당 활성화사업

-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지만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함
- 현재 많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시행한지 몇 년 되지 않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된 지원금의 부족,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미비, 지역사회 자원 확보의 부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과 설비의 부족 등과 같은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남
-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 접근방안이 필요
  - 경로당에서 지역의 특성과 이용 노인의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이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소로 역할 수행
  - 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하여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의 최소단위로 전환 : 경로당이 여가활동 외에도 보건의료, 사회참여, 상담, 소득보충,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로당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관리개념의 도입,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경로당 운영의 전문성 확보 필요

-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 책임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활성화사업 대상 경로당의 운영 책임자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운영주체와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
-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경로당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 : 경로당후원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시설, 단체, 조직 및 지역유지들과 접촉하여 경로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며,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중에서 공통적인 욕구와 상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끼리 소집단활동을 통하여 상호간에 협력과 지지를 제공하도록 자치활동을 조직하고 활성화시키도록 유도
-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사회단체, 학교, 종교단체, 회원조직, 주민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식적 · 비공식적 자원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경로당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소득보충을 위해서 소득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 : 소득보충사업은 경로당의 내부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특정한 사업 분야를 개발하여 사업을 실시하거나, 인근지역에서 일거리를 줄만한 공장이나 기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거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며, 또한 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노인자활후견기관 등과 같은 노인취업 알선기관 등과 협력하여 취업과 부업을 제공
-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적합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활용하고, 프로

그램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전문강사를 확보해야 하며, 간호사와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점차적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고 설비를 확충해야 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비와 기구들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확보

-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필요 :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성공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실시
-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체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과 사회자원을 연결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훌륭한 사회복지실천의 기법인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제3절 거점형 경로당 활성화방안

1. 거점형 경로당 설치 정책목표 및 성격의 재정립

□ 정책목표를 지역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정립

○ 노인복지의 정책목표를 순수한 일자리 창출로부터 점차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활성화로 전환

– 고령화계층의 노동통합을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내발적 지역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지역공동체를 활용할 경우 대표적으로 지역활성화사업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대표적 지자체는 완주군이며 시정의 공통평가지표로 활용

○ 경로당에서 지역공동체를 활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경우 인건비 보조 및 경영의 부실,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을 손상할 우려 발생

– 광주시 특유의 지역자원, 고령화 계층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을 지향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

□ 지역발전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 국책사업 연계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집중 육성

※ 기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관리를 통한 지속성 확보

<표 4-12> '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 3개부문 16개 사업

유형	사업 구분	주요 사업 사례
지역 특화 자원 활용형	ㅇ 지역특산물 (농수산물, 토속음식 등) 상품화 사업	- 당조고추 덖음차 공동제조사업(전북 완주) -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강원 정선군)
	ㅇ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 향토공예(짚풀, 맥간) 제작 및 판매사업(화성) - 전통한지 제조 복원 사업(전북 완주)
	ㅇ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 신생아용 손발싸개, 턱받이 제작사업(경기 안양) - 사랑의 반상기 제작사업(경기 안양)
	ㅇ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일자리발굴단 운영(구인업체 정보제공 등)
	ㅇ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기업연계, 주민자율)	- 봉제 주민공동작업장 운영(부산 해운대) - 자동차부품조립 지역공동체작업장운영(경남 창원)
	ㅇ 지자체 자율일자리	- 간병인, 해설사 등 1유형에 준하는 사업
지역 인프라 개선형	ㅇ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등)재활용사업	- 폐자원 Recycling사업(부산 연제구) - 친환경쌀뜨물 EM발효액(유용 미생물) 생산보급사업 (대구 남구)
	ㅇ 지역유휴공간 (폐교·폐철도·마을회관 등) 활용사업	- 폐교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관 정비사업(대구 동구) -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충남 천안)
	ㅇ 지역 문화관광 명소 활성화 사업	- 해미읍성 문화체험사업(충남 서산) - 태화산 카누마을 조성사업(강원 영월)

유형	사업 구분	주요 사업 사례
	ㅇ 공원·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 이기대 테마공원 및 주변편의시설 조성(부산 남구) - 공원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개보수 등 정비사업 - 해수욕장 등 행락지·마을주변 친환경 공원화 사업
	ㅇ 지역탐방로 조성 및 정비사업	- 감포 명품길 스토리벨트 조성(경북 경주)
	ㅇ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 감천문화마을사업(부산 사하구)
	ㅇ 친환경 생활공간관리 및 기타 국가시책사업	- 자전거길, 녹색길 친환경 시설관리,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쪽방촌(노숙인쉼터포함)지원사업, 학교도색 등
생활 안정 지원형	ㅇ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취약계층 집수리사업(대구 북구, 경남 밀양 등) *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제외
	ㅇ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방문 출산도우미사업(경기 시흥) - 다문화가족을 위한 유아돌보미 사업(제주) - 다문화 가정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ㅇ 다문화 여성 활용사업	- 책으로 성장하는 다문화 어학당(부산 금정) - 결혼이민여성 보육교사지원사업(경남 함양) - 다문화 여성 자국문화 홍보사업(경북 구미)

2. 사업주체를 법인격을 갖춘 지역공동체로 전환

○ 거점 경로당의 사업주체는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되 가급적 법인격을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

– 초기에는 활동적인(energetic) 사업가나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하는 공동체의 집단적 선도(collective initiative)도 매우 중요

○ 사업주체가 각종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주체의 법적 실체 또는 위상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방식, 재산의 소유관계, 대표자의 선임, 구성원의 권리·의무, 법률행위의 권능 등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

– 계약, 수익배분, 출자 유도, 조세감면, 사업의 지속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서 법인이 유리

※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주체에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을 통해 법인격 취득에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법인화를 유도

○ 다만 초기단계에서 법인격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법인격 취득의 장애 때문에 창업 및 사업 확산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초기에는 지역내 공동체 형성 및 복원에 초점을 두어 혈연, 지연, 학연, 직업 등에 연고를 둔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정책시행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법인화를 유도

– 지역공동체를 활용할 경우 영세성을 고려, 단기적으로는 세법상 준법인화(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무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법·상법상 법인화를 권장

3. 지역순환형 사업모델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

○ 거점 경로당을 활용하여 지역밀착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순환형 모델로 사업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순환형 모델이란 원료생산, 가공, 판매, 서비스 제공, 마케팅, 교육, 홍보 등 일련의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연결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자금이 지역내에서 순환됨으로써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형태

○ 주력사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성이 있는 융복합화된 부대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사업영역을 내부적으로 확대

○ 고령계층을 활용하여 거점 경로당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급적 지역자원활용형을 확대 보급하되 자원, 인력, 판매 및 서비스 수요 등을 지역내에서 조달하고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설계

4.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을 통한 간접지원 확대

☐ 정부지원방식의 점진적 전환

○ 현재는 정부의 보조가 사업비 일부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으로 운영
- 이는 상당수 지역공동체의 대상이 초기단계에서 사업비 지원이 없는 경우 창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초기 확산단계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나치게 지역공동체 운영을 사업비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사업의 지속이 곤란
- 특히 인건비를 재정지원에 의존하거나 자기자본 투입이 없이 보조금에 창업을 의존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개념의 본질적 요소인 자립성(영리성)을 현저하게 저해

○ 따라서 정부지원을 점차 설립에 대한 직접지원에서 운영에 대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보조금의 지급보다는 리더양성, 정보제공, 교육·컨설팅 지원, 정부우선구매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 궁극적으로는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도 자립적(self-sustaining)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을 강화
- 초기 단계에서도 지원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보조회수를 제한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 간접지원을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을 활성화하여 거점 경로당내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배양
-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이란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 등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incubator:보육기) 혹은 각종 자원(자금, 시설제공 등)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사업체의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

- 중앙 차원에서 공식적 중간지원조직은 없으며 초기에 지역진흥재단과 지역재단, 희망제작소 등 민간단체가 부분적으로 지원역할을 수행하였고, 시도 차원에서는 경남(민간기관 컨소시엄), 전북(전북발전연구원+민간기관 연계), 충남(충남발전연구원 → 사회경제지원센터+민간기관), 대구(대구사회연구소), 대전(풀뿌리사람들), 광주(광주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설립·운영
- 지역공동체는 일반 기업체에 비해 경영기반이 취약하므로 경영자원(자금, 인재, 경영 노하우 등)의 중요성이 더욱 크지만 이를 지원해줄 금융기관이나 컨설턴트가 없으므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

<표 4-13> 중간조직 사례(일본)

지원기능	지원메뉴
정보 수신발신 /조사연구	정보집약·정리(지역·단체·CB정보수집, 니즈조사, 선진사례조사 등) 정보툴의 제공·발신(SNS, ML, 회보지·보고서·출판물, 게시판 등)
이벤트개최	누구나가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의 개최(행사·포럼·심포지엄 등)
인재육성	강좌·세미나·학습회·연수·강연(플레이어·서포터·프로듀서 인재의 발탁·육성)
일반상담	지역활동에 대한 참가, NPO·CB의 설립·운영 등의 일반적인 상담대응·어드바이스
전문서포트	CB에 관련된 운영·마케팅·판촉, 회계·세무·노무·법인등록 등, 각종 전문적인 상담대응·수속지원·컨설팅
매칭코디네이트	지역자원(사람·물건·돈·정보 등)의 마케팅, 협력관계(행정·NPO·기업 등)의 코디네이트, 교류기회의 제공
지원시설의 운영	지원시설(공설센터의 사업위탁·지정관리자와 민간에서의 인큐베이션)의 운영, 장소, 비품의 제공
모임장소의 제공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의 제공 (시설과 별개의 집합소·free space·커뮤니티 레스토랑 등)
금전관련 서포트	CB·NPO에 대한 금전 지원(조성제도·사모채(私募債)·펀드·금융 등의 지원, 커뮤니티뱅크 사업 등)
그외의 독자사업	지원에 관련한 물판(物版)·판로개척·회원제도 외에 특징적인 기업과 서비스 등, 이윤이 주가 되는 독자사업의 실시
협동추진	행정과 기업에 대한 지역의 니즈에 응답한 업무제안·협동제안·정책제언, 제안의 지원 등

자료: ＮＰＯ法人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サポートセンター(2009),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 地域コーディネートハンドブック", http://www.cb-s.net/

○ 중간지원조직은 기본적으로 시도 단위 또는 시도내 광역권별로 설치하되, 지역공동체가 다수 활성화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조직을 별도로 설치 가능

– 중간지원조직은 플랫폼 형태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되 전문적 서비스(금융, 법률, 교육, 경영·회계, 마케팅 등)를 제공하는 컨설팅 조직과 MOU를 체결하여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연계화

※ 전문기관 : 시도 중소기업 지원센터, 시도 발전연구원 등

– 행정·기술지원을 위해 시군구-읍면동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

– 시도별로 재능나눔Pool을 구성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

※ 재능나눔Pool : 경영, 세무, 회계, 법률, 디자인 등 특정기술과 경험을 보 유한 기관, 단체, 개인 등

<그림 4-3>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설계(안)



5. 지자체 주도의 추진체계 확립

○ 지역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개입(지원 포함) 수준이 논란의 대상이 됨
  – 지역공동체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비해 규모나 능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지나친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 자립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타 민간부문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해쳐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공공부문의 지원은 제도적 지원 및 간접지원을 지향하되, 중앙정부는 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예산지원에 역할을 한정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업무를 주도하며 행정업무 위탁, 우선구매,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등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6. 일반 기업과의 상보(상생) 관계 형성

○ 지역공동체의 사업영역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부문과의 중복 및 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사업영역의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기여나 사회적 가치 창출(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이 전제되어야 함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큰 장점이 되며 사회공헌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지역공동체사업도 종래의 단순한 시민단체 활동 수준에서 일자리 창출형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중요

○ 지역공동체사업은 영업 및 조직경영상의 노하우,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하고, 기업은 해당 지역공동체를 CSR의 파트너로 삼아 사회공헌활동의 원활하게 도모함으로써 지역에 밀착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발전
  – 이러한 일반기업과 지역공동체간의 중개역할을 중간지원조직이 담당

7.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 지역공동체의 설립·운영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창업자금의 조달과 운영자금의 확보에 대한 금융접근성의 제약임
  –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초기 정부지원이 불가피하게 보조금 지원에 치중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창업한 기업들 중에 자금 소요의 상당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실정임

○ 사회연대은행(무담보, 무보증 원칙)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목적실현 기관에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으나 향후 증가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마을기업 등의 금융수요를 충당하기 역부족

○ 일차적으로 법제도가 마련될 경우 광주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운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림직함
  –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일부를 '거점형 경로당 지역공동체 육성자금'으로 확보하여 한도를 설정하여 융자

8.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거점 경로당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고령인구 대상 일자리 사업은 직접적으로 고령 인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감대를 확산

- 정부 정책PR은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국민의 이해와 호의를 조성하는 설득 활동이라는 점에서 선전과 구별됨

○ 현재 일자리사업의 홍보는 홈페이지, 언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 정보전달이 미흡한 실정
- 많은 사람이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실제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일자리 분야에 장·단기 홍보대응방안 마련 및 추진성과 분석 필요

○ 거점 경로당을 활용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홍보전략 추진
- 주요 사업 실행 일정에 맞춰 성공사례와 통계자료를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 환기 및 이슈화 방안 수립
- 지역내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와 홍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 연령계층, 성별 등 대상집단을 차별화하여 홍보전략을 달리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활용
- 각종언론기관 관계자에게 사업시책 및 활동을 알리고 협조체계를 구축
- 지역공동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포털사이트 구축을 검토

9. 거점 경로당 지역공동체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화

○ 중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거점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해야 함
- 즉 지역공동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통합 입법이 어려울 경우 거점 경로당을 활용한 지역공동체의 행·재정

지원을 위해 (가칭) 「거점 경로당 지역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거점 경로당을 활용한 지역공동체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원·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법인격 취득, 공공우선구매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보조, 교육, 컨설팅 등 행·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지역공동체 육성정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
- 구체적으로 법률은 목적, 정의,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역공동체육성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국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특례, 지원대상의 선정, 기금 설치·운용, 중간지원조직 설치, 사후관리 등에 내용으로 구성

❍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내 지역공동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독자적인 지원·육성시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4절 광주형 지역복지 지역공동체(안)

1. 지역복지형 모델의 정의 및 목표

□ 지역복지형 모델의 정의

❍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복지, 나누는 복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열어나가는 복지,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개개인들의 긍정적 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역복지임

❍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복지는 행정서비스에만 의존했던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마을만들기운동을 통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욕구를 해결해나가는 것임

- 이는 행정기관의 일률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지역복지는 주민들의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들(행정, 기관,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 등) 이 서로 연계하는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체계를 의미함

- 협력네트워크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각 협력기관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할 것인지, 단계별 적절한 지원은 무엇인지, 평가속에서 새로운 협력네트워크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
- 이속에서 협력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우리사회의 보편적 복지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됨

□ 지역복지형 모델의 목표

❍ 복지 네트워크 주체로서의 주민 형성

- 행정서비스 중심의 시혜적 복지를 공급받는 존재로서의 노인계층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의 특성 속에서 필요한 복지를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제공하고 해결해나가는 복지생산자로서의 노인계층 주체를 형성해야 함
- 노인계층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노인계층만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노인계층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노인계층들이 주도하는 과정임

❍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

- 협력네트워크는 행정과 전문가, 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유기적 연대체를 구축하는 것이며, 사안에 따라 서로간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

- 최저기준치의 복지기준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거나 노인계층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에 대한 욕구 및 지원가능 자원에 대해 끊임없는 조사가 전제되어야 함
- 또한 경제적 빈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속에서 나타나는 고립 문제,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 문제, 가정해체에 따른 방치 청소년 문제, 자녀 양육 및 육아문제, 취약계층 집단주거지 문제 등 지역의 여건 및 필요로 하는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함

❍ 지역복지의 정책화

- 광주에서 출발하는 복지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원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정책화, 제도화 과정 속에서 지역의 사례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며,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은 다시 지역의 복지공동체를 강화하고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됨

2. 지역복지형 모델 적용 여건

□ 지역복지형 모델 대상 지역여건

❍ 물리적 조건

- 지역복지는 물리적 환경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평가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취약한 주거공간, 서민 주거지, 취약계층의 집단 주거지 등은 지역복지의 일차적 대상이 됨

❍ 사회적 조건

– 지역복지형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조건은 주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임

• 세대별 관심사, 사안별 관심사 등을 나눌 수 있는 노인계층 관계망은 노인계층들의 요구와 관심에 기반하여 시작하는 지역복지의 기초가 됨

• 긴밀한 커뮤니티는 주민 서로간의 이해와 격려, 지원, 나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세대별, 사안별, 또는 이해관계별로 요구되는 사안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노인계층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꾀하는 과정을 가져야 함

• 사안별 복지와 이해집단 중심의 복지정책이 지역복지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분리된 복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역복지'는 '우리 모두의 복지'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어야 함

• 지역복지는 어느 한 집단의 필요를 해결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서로 연계시키면서 '공존과 공생'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며, 건강한 복지순환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 자원 조건

– 지역복지 모델의 자원 조건은 '노인계층간의 커뮤니티', '노인계층커뮤니티를 지원해주는 단체 및 기관', '협력네트워크의 지속성을 위한 정책수립자로서의 행정'임

• 노인계층간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지역일수록 지역복지공동체는 활성화될 여건이 높아지지만, 노인계층 커뮤니티가 열악한 지역이라도 지역복지공동체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음

• 노인계층참여는 노인계층들의 욕구와 의견, 필요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외화시키고 서로간의 다양한 협의속에서 구체적 합의사항을 실현

시켜나가는 것임

- 따라서 노인계층간의 커뮤니티가 낮은 지역이더라도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가 노인계층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끌어내고 이를 다시 노인계층과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복지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복지는 '노인계층만의 협력'으로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시스템의 구축, 제도적 지원, 예산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지역복지형 모델 참여자 구조

❍ 지역복지 주체로서의 노인계층

– 지역복지는 수혜자와 공급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복지의 공급자이면서 수혜자이기 때문에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노인계층을 항상 중심에 위치지어야 함

– 지역복지에 있어서 노인계층은 자신의 필요만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지와 지역공동체'의 관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함과 동시에 사안별 활동들이 서로 연계되면서 지역공동체 전체의 가치로 확산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주체로서의 지원단체

– 노인계층들이 지역복지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노인계층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한 새로운 변화나 요구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지원단체들은 각 기관의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단체 사업의 실현공간으로만 바라보는 경향도 있으며, 또한 협력네트워크 내부에서도 경쟁구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역할과 협력에 대해 명확히 설정함과 동시에 협력네트워크간의 갈등을 조정할 장치도 마련해

야 함

❍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주체로서의 행정

– 지역복지에 있어서 행정은 '사업예산지원'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기초지자체, 광주시간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인계층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나 관련 부서의 협력 지원, 관련 정책간의 협력지원 등 행정체계의 유기적 협력을 만들어내야 함

3. 지역복지형 모델 추진전략 및 과제

□ 지역복지형 모델 추진전략

❍ 지역복지에 대한 지역 공동체 공동의 관심 유발

– 지역복지형 지역공동체는 이해관계별 주민들의 공동 관심을 파악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 일차적임. 이는 개인별로 해결해나가는 복지가 아니라 '공동이 함께 해결해나가는 복지'의 출발점이 됨

– 초기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의 관심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필요'가 '특수 집단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필요 + 우리 마을 전체의 필요'라는 보편성을 가져야 함

– 이는 당장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동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함

• 우리 마을 전체의 필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는 지역복지의 몇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마을로부터 고립화'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다양한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중첩시키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높여나가야 함

❍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형성

- 노인계층들의 요구에 기초한 공동의 사안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소수 노인계층들의 복지' 나 '소수 의식있는 노인계층들의 복지'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복지'로 전환할 수 있음
-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는 마을내에 상주하면서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의 중심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마을내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는, 즉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의 중심일 수도 있음.
- 그러나 협력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상주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마을에 상주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지역복지공동체의 거점역할'을 해야 함
- 협력네트워크는 초기 구성 참여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닫힌 구조'가 아니라 마을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다양한 협력주체들이 때로는 긴밀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결합하는 '열린 구조'여야 함
- 마을을 중심에 두고 협력이나 지원한 사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면 협력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중심의 네트워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역할에 대해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 지역복지를 통한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은 특수한, 또는 개별 사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례지역의 가치를 '정책화,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이에 전문가와 행정은 사례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화, 제도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구조를 가져야 함
- 또한 지역복지공동체는 가장 노인계층과 밀접한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역할 역시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함

❑ 지역복지형 모델 세부추진과제

– 지역복지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모델의 세부추진과제 및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14> 세부추진과제 및 구체적 사업예시

세부추진과제	상세내용	구체적 사업예시
지역복지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 촉진	· 조사기관 선정 : 지원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조사기관이 협력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조사기관은 지양해야 함 · 지역의 물리적 특성, 사회적 관계, 주민특성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시행 · 노인계층특성과 공간특성을 결합한 분석을 통해 공동체의 관심사 도출	<조사와 분석> · 조사내용 및 방법 수립 · 조사의 의미 및 일정에 대한 주민홍보 · 현장조사 : 물리적환경, 공간분석 · 인터뷰조사: 주민들의 생활, 이웃관계 등 · 커뮤니티공간, 연계망 조사 · 공간+사회+시간적 관계 분석 완료 <주민홍보> · 주민간담회, 홍보물, 설명회 등을 통한 분석결과 공유 및 객관화 · 골목간담회 등 일상생활속에서 주민홍보 진행
지역복지와 공동체와의 관계성 제시	·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주민과 피드백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공동 관심사로 전환 · 향후 진행할 프로그램 및 방향 수립 ·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안 마련	· 주민설명회, 간담회 · 조사결과에 대한 골목 순회 전시회 · 주민요구사안 피드백을 위한 거리의견 청취 · 주민협의체 모임 구성 · 주민협의체 교육 : 협의체의 민주적 운영방안과 원칙 등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	· 공동체와 지역복지의 관계성에 대한 교육내용 구성 · 지역의 욕구를 중심으로 지원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일차적 사업에 대한 협의 · 다양한 사례 정리 및 제시 · 협의체 위원들의 주민과 공유방안 마련 · 지역복지 사업계획 수립 · 지역복지 거점 발굴 및 지원 · 사업설명회, 전시회, 소규모 간담회 등
지역복지 지원체계 구축	· 기획 및 실무지원 단체 선정 · 협력네트워크 구성 · 협력네트워크의 역할 및 지원방안 마련	· 기획 및 실무지원 단체 활동 예산 지원 · 관련기관 및 단체 참여 섭외 확정 및 운영 ·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과의 협력방안 논의 및 시행
지역복지 운영시스템 구축	· 협의체 안정화 ·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시스템 운영원칙 수립 · 지속적인 지원단체 및 기관 결합	· 지역복지거점 활성화 · 협의체의 공식 출범 · 지역의 복지욕구에 대한 지속적 파악 및 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의 연결망 구성 : 지원기관의 확대 · 정책 및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틀 구성

4. 지역복지형 모델 예시

☐ 건강공동체형

❍ 개념 및 특성

- ‘건강은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속에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건강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제시해야 함
- 몸의 건강→집의 건강→골목의 건강→마을의 건강→사회의 건강 이라는 순환시스템에 대한 이해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개인과 마을, 사회의 건강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건강에 대해서는 주민 개개인들의 요구나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 공동의 요구와 마을 전체의 요구를 적절하게 결합시킴으로서 ‘건강한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이 공유될 수 있음

❍ 대상지역의 조건

- 서민주거지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 취약계층 거주지역 등이 일차적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개개인의 비용지불’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마을의 커뮤니티’라는 관점이 훨씬 더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고령화사회속에서 고립의 문제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취약계층 거주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강공동체형 마을만들기를 시작해야 함

❍ 주요 사업내용

<표 4-15> 사업개요

구분	구체적 사업예시
건강마을주민협의체 구성	·직능단체 및 다양한 주민소모임, 주민리더 등 참여 ·건강과 마을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 ·지역조사 결과에 대한 다양한 홍보 ·주민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단 구성 및 예산 지원
건강거점공간 조성	·건강사랑방 조성 ·건강산책로, 건강텃밭 조성 ·보행위험 및 불량환경 개선
건강 네트워크 구성	·단체 및 기관과의 협약 체결 / 프로그램 운영 ·동네 의료기관의 정기 점진 ·다양한 사례지와의 교류
건강동아리 구성	·건강걷기모임 ·건강한 마을환경 만들기 활동·청소 등 ·어린이집과 연계한 건강교육

<그림 4-4> 삼태기건강마을 마실사랑방, 건강산책로, 건강동아리







5. 지역복지형 모델 국내외 사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태기마을

❍ 대상지역의 개요

– 천장산 자락의 자연발생형 저층 주거지인 삼태기마을은 정주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간의 커뮤니티가 강하나 오래된 주거지로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이 낮아 중단된 상태임

– 서울의 저층주거지의 대부분이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처럼 삼태

기마을 역시 노인층이 많고 거주기간이 오래되어 주민간 친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

❍ 추진배경

– 건강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은 서울시의 복지분야 시범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달리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먼저 선정한 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강마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원단이 시범마을 2곳에 밀착하여 지원하는 형태임

• 건강마을지원단으로는 성공회대가 총괄, 도시연대와 의료생협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연대는 성북구 삼태기마을을, 의료생협은 강북구 번2동을 담당하였음

– 삼태기마을과 인접한 석관1동이 2006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삼태기마을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을 포기하고 대안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음

– 이러한 과정속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도시사업이 진행되었고, 2012년 서울시 건강마을공동체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마을 사업이 시작됨

❍ 세부추진내용

– 건강마을 지원단 활동1 : 지역조사 및 분석, 홍보, 교육, 협의체지원, 공간정비

• 지원단의 목표는 건강마을 사업추진 주민토대 구축, 사업단 부재속에서 사업추진 기반 마련, 사업단과 지원단의 역할 구분을 통한 협의체 강화, 삼태기마을 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임

• 교육은 사례중심이나 ‘주민참여’라는 당위성에서 벗어나 건강마을에 대한 이해부터 실질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주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시행

• 건강사랑방 리모델링의 원칙은 무장애공간, 최소한의 공간, 다목적 공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건강한 공간’만들기에 주력하면서 주민들과

3D로 시연해보면서 설계방향 설정 및 시공 완료함

- 건강골목 조성을 위해 주민워크 , 디자인간담회, 주민과 함께 골목답사 등을 통해 삼태기마을의 공간 자원을 활용한 건강골목 가이드라인 제시

– 건강마을 지원단 활동2 : 협력네트워크 토대 구축, 주민협의체 주도성 강화

- 지원단의 활동과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 사전 협의를 통해 초기에는 지원단이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했으며, 지원단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성북구 지원센터가 전면에 나서면서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이 되도록 진행하였음
- 주민협의체 강화를 위해 성북구보건소 및 서울시의 계획을 협의체와 공유하면서 협의체에서 계획을 재수정하고 새롭게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재능 기부활동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에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건강카페에서 청력 및 비강, 구강, 어지럼증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과의사의 충치 및 치주질환검진도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내과 및 정신과 등 타 의료분야로 확대 추진 예정임
- 성북구 치매센터와 협력하여 1차 및 2차 검진 진행, 검진 후 유소견이 있을 경우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CT와 MRI 정밀검사를 국비 지원으로 무료검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 마을환경 개선 및 건강모임 구성

- 매월 2,4째주 수요일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성북구청 청소과와 월곡동주민센터가 함께 하고 있음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생활체육강사의 올바른 걷기방법 지도를 통해 40명의 회원들이 정기적인 걷기모임에 참여

– 찾아가는 마을학교

-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5차례 진행하

였으며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성공요인과 시사점

– 지원단의 주민 주도성 지원을 통한 건강마을 토대 마련

• 주민주도성 강화는 건강마을에 대한 이해부터 주민들이 적극적 발언,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 등의 과정에서 건강마을 추진에 대한 구상을 갖는 것임

• 이러한 관점 속에서 교육 및 워크숍 등 삼태기마을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시켰음

– 일상공간의 건강성 확보

• 초기 사업단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환경정비는 '건강'개념 보다는 '환경개선'에 치중하고 있었으나 공간 및 주민행태 분석,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주민교육 및 워크숍, 디자인 간담회,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의 건강성 확보'라는 인식을 갖게 했으며 이는 '건강골목' '건강산책로' 등으로 외화되었음

– 지역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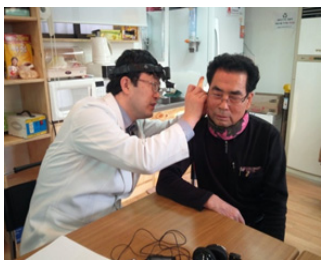
• 지원단은 한시적 역할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삼태기마을을 지원하고 성북구의 다양한 정책과 결합시켜 줄 매개체가 필요한데,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2012년 10월부터 삼태기마을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원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지속

•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를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모아내고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즉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매개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임.

• 따라서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건강마을 사업단을 지속시키면서 주민협의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운영, 지원을 열어나가야 하는데 현재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삼태기마을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림 4-5> 건강검진, 어린이건강교실, 해외기관의 방문





【참고문헌】

강흥구(2000),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8호, 한국노인복지학회.

구해모(2000), “고령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원칙과 유의사항”, 스포츠 과학71,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김경란(2000),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생활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범수(2001),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 복지관과의 연계방안”, 노인복지연구 1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김수춘 외(1995),『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양숙 외(2001), “노인의 ADL, IADL, 건강 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 경로당 회원과 비회원간의 비교, 논문집 제19호 제2호, 동남보건대학.

김현미(200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현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나상희 외(2000),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류호열(2001), “우리나라 경로당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과천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명주식(2003),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자치행정연수 제45호,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모선희(2003), “도·농 복합지역의 경로당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전시 유성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연구 제27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부진(2003), “도심속의 사랑방 : 경로당의 문화 분석”, 노인복지정책연구, 제27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을남(2001),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용 노인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간(1998), “경로당 운영의 실태 및 정책방향”,『노인복지정책연구』, 제2권 제4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현옥(2004), “경로당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5),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경로당 기능쇄신 방안”.

신정숙(2001), “경로당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영희 정경희 이윤경(2004),『경로당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오현숙(2003), “경로당 이용 만족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24집, 대진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유성호 외(2003),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노인복지 회관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정책연구 제27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은 영 외(2001), “복지관 경로당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 서비스 요구”, 노인간호학회지 제3권 제1호, 노인간호학회.

이근홍(1999), “노인의 경로당 이용 만족도와 운영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제5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영선(2004),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경로당 건강 증진 사업: 광주시 노인의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한 지역자원 활용”, 보건간호소식 제62호, 대한간호협회.

이인수(2003), “중소 도시 경로당의 복지서비스와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통권6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이인철(2003),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 제597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재모(2004), “노인의 경로당 이용 특성과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5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임춘식(1997),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제8회 노인복지학술대회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자료집, 서울특별시.

정길홍 외(2000),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호.

조소영(2003), “경로당 공간의 기능 변화에 따른 지원정책 방안”, 노인복지정책

연구 제27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조주연(2004), “위험한 경로당, 안전 사각지대에 노인: 시설 안전 점수 평균 54.8점으로 낙제점”, 119 Siren 통권 33호, 싸이렌.
천진희(2004), “경로당 실내 환경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내 14개 시설을 중심으로”, 디자인학회지 통권 57호, 한국디자인학회.